

국민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정부대표전화 110

청렴 세상

부패신고 1398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0506

2010 vol.14

ACRC

붉은 6월, 한반도를 일으키는 그 가슴 뛰는 함성!!! 아~ 대! 한! 민! 국!



한여름이 채 무르익기도 전.....

6월의 붉은 함성은 한반도 전역을
섭씨 30도 이상으로 달구기 시작한다.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의 너른 땅을 누비는
태극전사의 투혼의 열기에
붉은 응원의 물결은 그들의 영혼을 강렬히 뒤흔든다.



그 타오르는 붉은 함성으로 승리를 거세게 두드려라!

다함께 외쳐보자! 그 자랑스럽고도 자랑스러운 이름!
아~ 대! 한! 민! 국!

16강의 높은 고지를 넘어
대한민국이 만드는 기적의 그 날,
세계는 우리의 붉은 열정 아래 있다!!!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0.0506 vol.14

기획°특집

기획 특집	04	청렴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곧 행복한 우리의 미래
글로벌 ACRC	08	청렴정책 미국 설명회 개최 반부패정책 국제 공조를 강화하다
ACRC Inside1	11	꼼꼼한 제도 개선, 달라지는 서민생활
ACRC Inside2	15	국민들의 생활현장 찾은 110콜센터 전국 방문 행사

희망°공감

다시 찾은 권익 & 다시 만난 사람	20	예비군 훈련 중 의문사한 최씨, 42년 만에 국립헌정원을 찾아 고요히 잠들다
만화로 보는 고충처리	23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서상원 조사관
행정심판 다시보기	24	30년간 갇혀 지낸 외톨이 전주 행치마을, 마침내 세상 밖으로~
현장에서 찾은 희망	26	기본급·고정급 없는 시간제 우유배달원도 명백한 근로자!!!
기자의 취재노트	28	선진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31	'당첨자의 분노' 편 _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취재 후기

행복°누림

희망 인터뷰	35	산악인 엄홍길
우리가 먼저	38	기업 메세나, 이제 규칙을 하나 둘 만들어갈 때!!!
브라보! 대한민국!	41	한국 전통혼례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생활법률 110	44	휴양지 펜션 주차장에서 도난당한 자동차,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통째로 보는 책 한 권	46	'2010' 부모들의 교육을 바로잡고자 5백 년을 거슬러 깨어난 <엄격한 율곡씨>
ACRC News	48	
편집 후기	50	



정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정렴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곧 행복한 우리의 미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을 ‘정렴한 세상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정렴 철학이 국가 전반에 자리 잡지 않고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명징한 사실을 인식하고 정렴의 철학과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 이번 정렴 캠페인의 목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본 터전이 되는 ‘정렴’의 씨앗을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고 뿌려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햇볕을 주는 마스터플랜이 차근차근 결실을 맺어 성숙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해본다.

글 · 이용규 편집실



선진일류 국가의 키워드는 '청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거대한 화두 '청렴 清廉'. “성품(性品)이 고결(高潔)하고 탐욕(貪慾)이 없음”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비가 새는 집에서 겨울옷은 단 한 벌뿐이던 황희 정승처럼 살자는 게 아니다. 난해하고 막연한 화두로 또는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모범답안으로 쓱 넘겨버리지 않고, 공직사회를 비롯해 기업과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 청렴을 숨결처럼 새겨 넣자는 취지이다. 청렴 캠페인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렴의식이 사회전반에 기본철학으로 자리 잡지 못해, 크고 작은 부패가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구어 낸 저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부패를 어느 정도 용인한 측면이 있었다. 그 때 용인된 부패가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부패 요인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사실은 선진국의 예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4만 달러 수준인 나라의 국가청렴도는 대부분 7.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전 세계 180개국 중 39위, OECD 30개국

가운데 22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0위권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경제 규모에 맞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패인식지수가 7.0점대까지 올라가야 한다.

청렴한 사회는 단 시간에, 몇 명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를 때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반부패 청렴을 의무화하고, 국민에게 청렴을 생활화하도록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운동이 공직자와 국민 속에 퍼지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투명해질 때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의 청렴성과 정부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으로 윤리적이고 청렴한 삶이 전파되는 기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1의 목표이다. 특히 위원회 출범 3년째를 맞은 금년은 우리나라가 G20회의를 개최하는 해로, 높아진 국제 위상에 걸맞는 국격이 필요한 해이다. '청렴한 세상 만들기' 원년 선포는 국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청렴도'를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내딛는 행사로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할 것이다.

공직자에서 출발, 국민과 기업, 시민사회로 확산돼야

무엇보다 '청렴한 세상 만들기'는 공직자 몇 명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장기적, 거시적인 프로젝트이며 문화운동이다. 공



직자에게는 ‘반부패 청렴’이 의무이고 국민에게는 생활이 되어야 진정으로 청렴한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싱가포르 같은 국가청렴도가 높은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공직사회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부패도 간과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지 않는 Zero Tolerance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부패·청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 시스템 전반이 투명하게 될 때 비로소 청렴 선진국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품, 향응 등 전통적인 부패는 물론 업무의 공정성 저해 등도 부패로 인식하는 부패 개념의 확장과 부패가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대가에 대한 인식 정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이 부패하면 자원이 낭비되고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기업부패는 곧 공공부문의 부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부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공부문의 부패방지도 불가능한 미션이 된다 하겠다. 그런 만큼,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기업들에게 촉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기업들도 ‘반부패 청렴’에 대한 가치 공유와 실천 노력을 확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운동

올해 초 청렴 캠페인을 선포하고 시작된 ‘찾아가는 청렴 교육’은 이재오 위원장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과 대학 등을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반부패·청렴 분야의 대표적인 현장중심 행정이라 할 수 있다. 5월말까지 41곳을 방문하여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위원장의 공격적인 청렴교육은 곧 청렴전도사를 자처하는 그의 바쁜 행보를 말해주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어릴 때부터 윤리의식이 가치관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준비되어 있다. 이는 청렴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전국 36개 초·중·고를 ‘청렴연구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고 향후 모든 초중고로 확대하여 공교육 과정에 청렴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청렴 글짓기대회(7월 예선, 10월 본선), 중학교 청렴 백일장(6월 예선, 9월 본선), 청렴 에세이 공모전 및 고등학교 청렴 논술경시대회(5월), 대학생 청렴홍보단 운영(6월~11월), 어머니 청렴지킴이(7월~10월) 등의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했거나 운영 예정에 있으며, 특히 대학생 청렴홍보단과 어머니 청렴지킴이 등 자율 활동 모임을 통해 반부패·청렴 실천 리더로



서의 역할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시민 자율감시를 통한 반부패·청렴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시민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렴옴부즈맨(시민감사관)을 확대하여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해내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분야별로 사회지도층들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사회 전반에 청렴과 신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건전한 경조문화 유도를 위해 고위공직자 경조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내용이 우수한 롤 모델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반부패 청렴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2일 ‘청렴 선진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심포지엄’이 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또한 4월 24일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걸스카우트 대회에서 반부패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하였는데, 이날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캠페인에 걸스카우트 회원 4,000명이 참가해 큰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월 7일(목) 서울역광장에서는 투명사회정책협의회(의장 김영래 아주대 교수)와 공동 개최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래 투명사회정책협의회 의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권익위원회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세상’ 캠페인의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

대식에서는 권익위의 새로운 반부패·청렴 캠페인 브랜드인 ‘청렴한 세상’을 선포하였고, 로고 선포식과 배지 달기 등의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또한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지 등을 전달하였다. 특히 반부패·청렴이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거리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청렴한 세상 만들기’의 힘찬 출발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하였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청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은 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는 사회 각계각층이 직접 참여하여 청렴의식을 드높이고 사회 곳곳에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청렴한 세상을 아십니까?

로고 ‘청렴한 세상’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韓’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더 나아가 온 누리에 맑고 깨끗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기상을 물방울 무늬로 형상화하였다. 청렴(Integrity), 정직(Honesty)을 상징하는 짙은 파란색을 ‘청렴한 세상’의 타이포 컬러로 사용하였고, 친근하고 감성적인 하늘색, 녹색 및 노란 색의 보조 칼라로 청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행복을 형상화하였다. 봄의 기운이 만연하는 자연을 보는 듯 따뜻한 전체 인상과 엄격한 파란색의 조화,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한자의 어울림 그리고 심플한 물방울 디자인만으로도 충분히 함의를 전달하고 있다.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UN본부에서 아샤 로즈 미기로(Asha - Rose Migiro) 사무부총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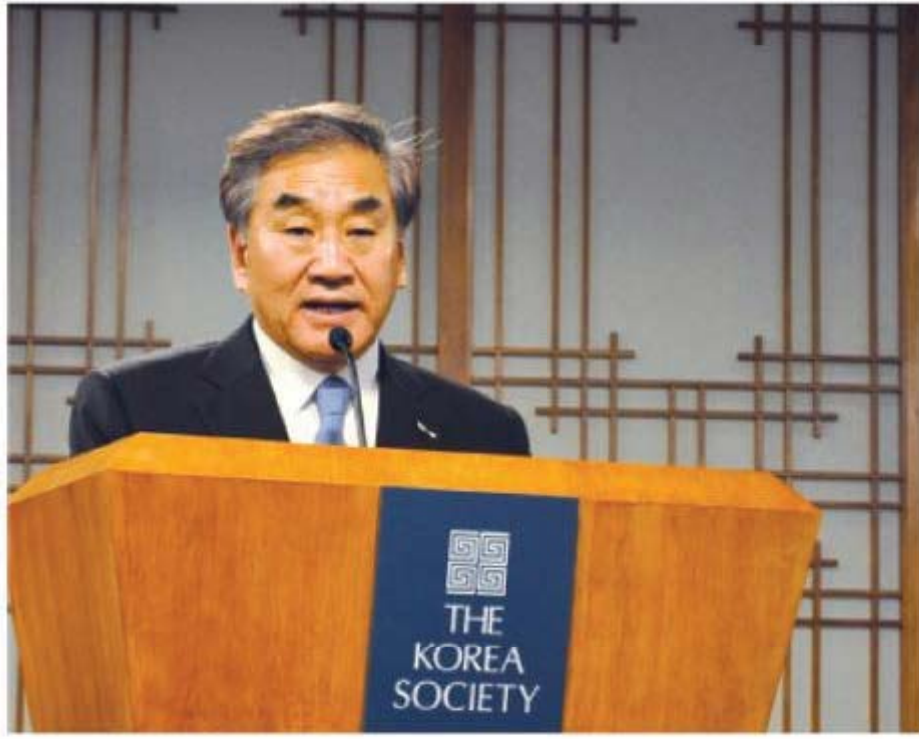
청렴정책 미국 설명회 개최, 반부패정책 국제 공조를 강화하다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반부패정책의 국제 공조와 해외 홍보를 위해 미국의 워싱턴 DC와 뉴욕 현지에서 청렴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세계은행, 미 정부윤리청, UN 등을 각각 방문하여 반부패정책 국제 공조와 함께 G20 정상회의시 반부패 문제를 정식 의제화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등 보다 긴밀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글·반지연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정리·전채련 편집실



이 위원장이 UN 사무부총장과 함께 반부패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위원장이 한미 간 학술 및 교류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에서 청렴특강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 마크 민튼(Mark C. Minton) 회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워싱턴·뉴욕에서 청렴정책 설명회를 진행해

지난 5월 25일 이 위원장은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큰 영향을 갖고 있는 WGI(거버넌스 지수,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발표기관인 세계은행(World Bank)의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총재를 직접 만나 한국의 청렴정책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이 위원장에게 반부패 프로그램 연구와 정보 분석을 위해 세계은행의 방콕 허브에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 위원장과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반부패정책이 의제화 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우리나라는 반부패 이슈와 관련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몽골에 반부패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을 비롯해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 반부패기술지원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26일에는 미국 행정부의 윤리 업무를 총괄하는 미 정부윤리청(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로버트 쿠식(Robert I.

Cusick) 청장을 만나 ▲미 연방정부의 윤리교육 프로그램과 권익위의 공직자 청렴교육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각각의 공직 업무에 맞는 윤리를 개발해 업무에 실제 적용시킨 미 연방정부의 ‘공직윤리 내재화’ 교육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UN 사무부총장과의 면담에서 반부패를 ‘G20 정상회의’ 의제로 추진하는 데 공조기로

이 위원장은 5월 27일 UN 방문 일정 중 아샤 로즈 미기로(Asha-Rose Migiro) UN사무부총장을 만나 반부패 국제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리는 제안도 논의하였다. 권익위의 이번 미국 정책설명회는 당초 3월말로 예정했다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보류된 것으로, UN과 월드뱅크(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미 정부윤리청 등 반부패기구를 이 위원장이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의 청렴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대외신인도를 개선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위원장이 뉴저지(Fort Lee) 소재 한인 유통업체인 H-mart를 방문해 업체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 위원장이 워싱턴 소재 한사랑종합학교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교민·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방문 광폭 행보 이어져

이밖에도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 다양한 현장방문 행보를 펼쳐 5월 24일에는 미국 내 아시아권 이민자들의 교육과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워싱턴 한인봉사센터(이사장 해럴드 변)를 방문해 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을 듣고 “한인들의 봉사활동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교민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격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생애교육(Senior Academy)에 참가한 한인들의 영어 수업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북미 지역 한인동포들의



이 위원장이 세계은행(World Bank)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총재를 방문해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직업기술교육기관인 워싱턴 한사랑종합학교(학교장 육종호)를 방문해 관계자들부터 학교 시설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예산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UN 방문차 뉴욕으로 건너간 이 위원장은 5월 26일 교민간담회에 참석해 “미 의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한미 FTA를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미주 동포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독려하고, 27일 오전(현지 시각)에는 뉴저지 포트리(Fort Lee) 소재 한인 유통업체를 방문해 유통 단계와 업체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같은 날 이 위원장은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단(회장 최창수 삼성전자 북미총괄법인 부사장)이 주최하는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현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편 이 위원장은 2008년 겸임교수로 잠시 몸담았던 존스홉킨스대를 찾아 학생들과 교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청렴 특강을 개최하고,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강력한 청렴정책으로부터 나온다”며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 위원장의 이번 미국 정책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국격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투명성과 청렴도가 실제보다 저평가되어왔다는 인식 아래 그간 개선된 우리나라의 부패 상황을 국제사회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해외 홍보를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꼼꼼한 제도 개선, 달라지는 서민생활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다. 또 훈령이나 예규같은 행정규칙의 내용에 따라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농민, 어민, 임차인, 노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시행규칙 하나하나가 더욱 절실한 경우도 많다. 실제 생활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민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사례를 살펴보자.

글·편경애 편집실



농민과 어민도 대학 입학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 영농·어업종사자 대학입학 기회 확대

영농·어업종사자에게도 정원 내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 입학의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권익위가 대학입학 취업자 특별전형 내용에 ‘영농·어업종사자’를 포함하도록 개선·권고함으로써, 영농 및 어업종사자도 취업자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취업자 특별전형 선발대상이 산업체 취업자로만 규정돼 있어 영농·어업종사자들에게는 대학 문턱이 높기만 했다. 실제로 2010학년도 영농종사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창원대, 대진대 등 10개 대학에 불과하고 어업종사자를 특별전형 대상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농·어업법인체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비롯해 자영농업·어업에 종사하며 농지·어선원부증명서, 후계농업·어업경영인확인서,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등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이들 또한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주어진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확 줄어듭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제도개선

“요청하신 사진 보내 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에 속아 포토메일을 열어본 뒤 뒤늦게 스팸인 것을 알았지만 이미 휴대폰 소액결제가 승인된 것에 분통을 터트린 A씨. 미성년인 자녀가 허락도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로 승인한 게임머니 때문에 청구서를 받고 황당했던 B씨. 이처럼 억울하게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신고를 한다 해도 건당 3,000원~10,000원 내외의 소액이라는 점과 사용자가 직접 피해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

권익위는 표준계약을 위반한 불공정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관리감독 기관의 무관심과 관련 제도의 미흡함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피해 구제를 단념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이처럼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결제대행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의 묵인 또는 소비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발생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액이 2009년 한해에만 약 4천 3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의 사전거래인증·품질인증제 도입,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휴대폰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향상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일방적 임대료에 우는 서민 걱정 덜어드립니다

— 임차인 보호 위해 불공정계약 개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인상 요인을 설명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표준계약서를 위반한 불공정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관리감독 기관의 무관심과 관련 제도의 미흡함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이밖에도 주민복지 시설을 불법 전용해 관리소장의 개인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를 인상하면서 임차인과 협의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투명한 관리 운영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 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 조건을 설명해야 하고 ▲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시 인상 요인을 임대사업자가 제시해야 하며 ▲ 인상요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 승인 이후 2년 동안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며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

임대주택을 나가는 경우 임차인에게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화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부모님 부양에도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 효도수당제 확대 · 효행표창자 수업료 보조 추진

권익위는 몇몇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효도수당제의 전국 확대와 효행표창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혜택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효문화 진흥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문화관광체육부, 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주시를 비롯해 진주시, 수원시, 익산시, 보령시, 구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효도수당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부양자에게 의료비를 장기저리로 대부하는가 하면 국민주택 공급시에 우선공급·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줘 부모 부양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효행표창제가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혜택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효행표창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 문화시설 및 공연 무료 이용, 취업 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권익위는 또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효
행교육을 강화해 도덕·윤리 교과목에 체험활동제, 효행교육이수
시간제 등을 실시하고 노부모나 노령자를 학대하는 등의 반인륜
범죄자에 대해서는 효행사회봉사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
해 권고안에 명시했다.

고령화 사회, 어르신 요양 제도도 한층 업그레이드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제도개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
위가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
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노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
지 않으면서 제공한 것으로 조작해 청구하는 허위청구와 서비스
제공일수나 시간을 부풀려 청구하는 증일청구, 증량청구 등 노인
요양 기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요양보험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개
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장기요양 기관의 부정 청구 및 각종 불
법 행위가 방지돼 약 160억 원 이상이 절감될 뿐 아니라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 수급자 범위가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확대돼
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인 노인 3만 명 이상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내의 노인장기요양 서
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가 연계돼 한층 효율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차만별 진단서 발급 비용, 이제는 표준화됩니다!

— 의료진단서 발급 수수료·양식 표준화 추진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의료진단서 발급 비용이 객관적으
로 표준화돼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
망된다. 권익위는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 등 의료진단서
를 발급하는 기관과 청구보험사별로 적게는 5배에서 크게는 10배
까지 차이 나는 의료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의료진단서 발급 수
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실태 조사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1만~5만 원으로 5배 차이,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천~3만 원까지 10배나 차이가 나는 의
료진단서는 보험사별로도 제각각 다른 양식을 요구해 불편함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의료기관
(병원)과 보건소의 진단서 표준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고, 경찰서·
법원 등 제출 기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개선될 뿐
아니라 보험사별로 제각각 요구하는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들의 생활현장 찾은 110콜센터 전국 방문 행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대표전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개소 3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특별 행사를 마련했다. 국민과 함께 한 1100일 간의 활동성과를 전국의 국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110콜센터 전국 방문 행사'가 바로 그것. 땀과 감동이 어우러진 110콜센터 전국 방문 행사, 그 생생한 현장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글 · 편경애 편집실



국민과 함께한 1100일, 국민과 함께하는 110시간

개소 3주년을 맞은 정부대표전화 110콜센터가 국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 나섰다.

2007년 5월 10일 전국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110콜센터는 지난 3년 동안 국민이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과 정부 민원을 상담하고 안내하여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빠른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전국 방문 행사는 110콜센터를 이용했던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110콜센터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대표전화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를 위해 110콜센터는 ‘국민과 함께한 1100일, 국민과 함께하는 110시간’을 캐치프레이즈로, 별도의 전문 상담사와 공연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110시간 동안 13개 시·군을 방문했

다. 특히, 일터와 거리, 장터와 축제, 도시와 농촌, 학교와 터미널 등 다양한 생활현장에서 평소 국민이 궁금하고 불편해 하고 어려웠던 일에 대해 즉석 현장 상담 및 안내를 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해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다양한 공연과 즉석 현장상담이 어우러진 110콜센터 전국 방문 행사

5월 6일 오전 8시.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권익위 청사 앞. 110콜센터 직원들은 이재오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 3주년 기념 전국 방문 행사 발대식을 가졌다. 이재오 위원장은 콜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110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발대식을 마친 110콜센터 직원들은 강원도 원주로 향하는 랩핑버스에 올랐다. 전국 방문 행



사의 첫 방문지인 원주에서 110콜센터 직원들은 수학여행 중인 중고등학생을 비롯해 여행 중인 가족, 출장지로 향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국민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었다.

이어 안동으로 향한 110콜센터는 하회마을 장터에서 퓨전 현악 연주에 맞춰 비보이 공연을 펼쳐 관광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충효당에서는 하회마을 보존회, 안동 유림들이 이재오 위원장에게 <치신청소(治身淸素)>라는 문구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이 문구에는 '110콜센터가 국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는 정부기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둘째 날에는 대구와 울산, 부산 방문이 이어졌다. 특히 대구 송현초등학교에서는 4학년 학생들에게 110콜센터의 역할과 이용 방법을 소개하는 일일교사 활동을 펼쳐 시선을 모았다. 이 학교는 110콜센터 최연소 민원인이 재학 중인 곳

으로, '학교 앞에 신호등이 고장나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학생의 신고로 110콜센터 상담사가 즉시 민원을 해결한 사연이 있다.

셋째 날에는 오전 7시에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일본을 오가는 여행객에게 정부 대표전화 110콜센터를 알렸고, 이어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맞닿은 하동의 화개장터, 광주 세계광엑스포 현장을 찾아 문화 공연과 함께 즉석 현장 민원 상담을 병행했다.

또 넷째 날에는 잠시 홍보 활동을 접고 농촌 봉사 활동의 시간도 가졌다. 110콜센터가 찾은 전북 김제 대청마을은 '마을 입구의 다리를 넓혀 달라'는 민원을 권익위가 해결하고 1사1촌의 인연까지 맺은 마을로, 콜센터 직원들이 바쁜 농촌 일손을 도와 마을 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끝낸 110콜센터는 대전 오월드,



청주 육거리 시장 등을 방문하여 관광객, 초등학교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의 국민들을 만났다. 다음 날 이천 도자기축제 현장, 인천 소래포구를 마지막으로 4박 5일, 110시간의 긴 여정을 마친 110콜센터는 권익위 청사 앞에서 해단식을 함으로써 개소 3주년 기념 전국 방문 행사를 마무리했다.

정부대표전화 110, 종합 민원상담의 원스톱 창구

2007년 전국 서비스를 시작한 110콜센터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종합적으로 상담·안내하는 범정부 HUB콜센터로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상담사가 ARS(자동응답) 없이 직접 민원을 상담·안내하고 있다.

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와 관련해 60만여 건의 상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110콜

센터는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새주소 등 일반 행정 민원부터 양도소득세, 근로장려금, 취득세 등 세금·공공요금 상담은 물론 일자리 안내, 기초생활수급, 서민금융 지원 등 사회안전망 안내와 불법 사금융, 임금 체불, 금품 착취, 보이스피싱 등 생계침해 신고·상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전문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피해신고 접수와 안내에 머물지 않고 그 간의 피해상담 사례 4만 4천 건을 분석해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정보창구 역할도 해왔다.

110콜센터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은 물론,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상담(씨토크 서비스 이용)도 서비스하고 있다. 110홈페이지(www.110.go.kr)에 접속하면 예약 상담도 가능하다. 영어·일어·베트남어 등 20여 개 외국어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82-2-2012-9110으로 전화하면 된다. 🌐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국민권익위원회

희/망/공/감

다시 찾은 권익 & 다시 만난 사람	20	예비군 훈련 중 의문사한 최씨, 42년 만에 국립현충원을 찾아 고요히 잠들다
만화로 보는 고충처리	23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서상원 조사관
행정심판 다시보기	24	30년간 갇혀 지낸 외톨이 전주 행치마을, 마침내 세상 밖으로~
현장에서 찾은 희망	26	기본급·고정급 없는 시간제 우유배달원도 명백한 근로자!!!
기자의 취재노트	28	선진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31	'당첨자의 분노' 편 _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취재 후기



예비군 훈련 중 의문사한 최씨, 42년 만에 국립현충원에서 고요히 잠들다

42년 전 전남 광주에서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의문의 사망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의 열정과 노력으로 조사 1년 만에 그 진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민원을 신청한 최씨의 형님은 마침내 국립현충원에서 편안히 두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고, 민원인 최씨(의문사한 예비군 최○○ 씨의 동생)를 비롯한 유족들도 석연치 않은 죽음으로 하염없이 눈물만을 흘리던 아픈 세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국민권익>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건의 발단부터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간의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보았다.

글 · 전채련 편집실 사진 · 조항진

1) 1968년 6월 15일



1968년 남파간첩 사건인 1.21사태(김신조사건)가 발생한 이후, 국가 안보에 위기의식을 느낀 대한민국 정부는 군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 25세였던 최○○ 씨는 예비군 1호로서 훈련을 받기 위해 전남 광주 예비군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었다.

2) 1968년 6월 17일 _ 전남 광주 예비군 훈련소



동료들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던 최○○ 씨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갑작스레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게 되었다.

3) 1968년 6월 17일~6월 19일 _ 육군77병원 응급실 & 입원실



최○○ 씨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부터 구급차로 황급히 실려와 육군77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이후 바로 다음날 입원실로 옮겨졌으나, 응급실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4) 1968년 6월 19일 _ 육군 77병원 내 복도 & 병원 내 접수대



사망 통지를 받은 최○○ 씨의 유족이 급히 육군77 병원으로 찾아갔으나, 병원에서는 “급성 복막염으로 사망했지만, 원인은 모르겠다.”며, 단순 ‘병사’로 처리하였다. 최○○ 씨가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부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고, 사건의 목격자인 동료 예비군들은 훈련이 끝나자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말았다.

5) 1974년 어느 날 _ 전남 광주 예비군 훈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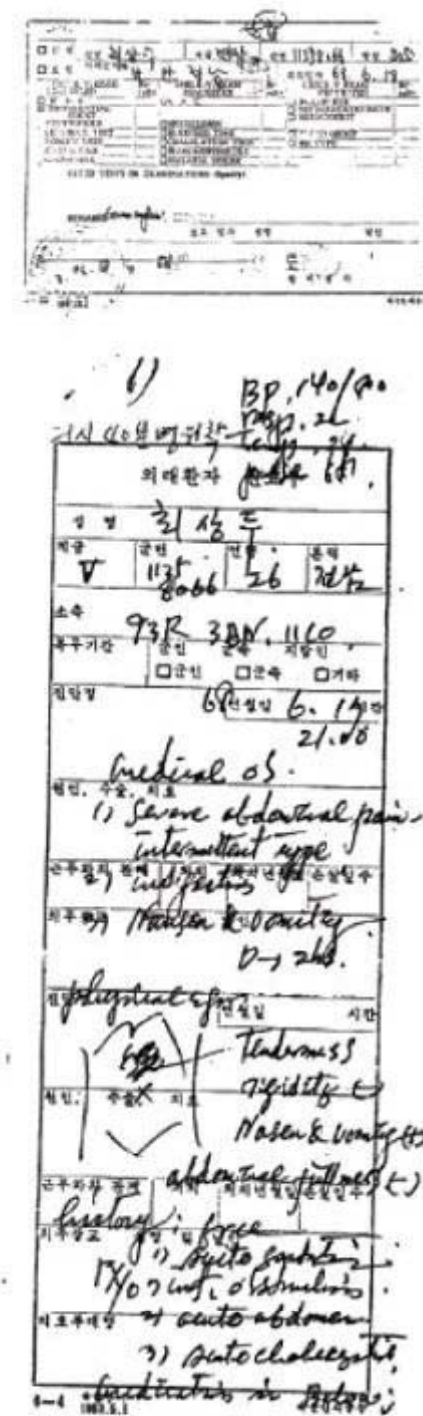
사망 하루 만에 화장을 한 최○○ 씨 유족들은 이후 ‘구타로 인한 장파열’을 의심했지만, 당시는 북한 특수부대원의 청와대 습격사건(1.21사태)이 발생했던 어수선한 시기여서 제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었고, 사건 발생 6년 후인 1974년에야 비로소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으나 ‘사회혼란 세력’이라는 혐박만 듣게 되었다.

6) 2009년 3월 _ 국민권익위원회



2009년 3월 민원인 최씨는 우연히 기차를 타고 가다 객차 안에 붙은 권익위 홍보 포스터를 본 후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7) 2009년 3월~4월 _ 육군77병원 & 대한의사협회 자료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군번이 잘못 기재되어 있던 사망자의 병상일지를 어렵게 찾아내 대한의사협회에 분석을 요청하였고 사고 당시 ‘복강 내 출혈(장 파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건을 담당했던 국방보훈민원과 서상원 조사관은 고인의 죽음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8) 2009년 5월~10월까지의 여정 _ 권익위 사무실 & 전남 구례군청 및 마을회관 등



국방보훈민원과 서상원 조사관은 최○○ 씨의 소속 부대 장교와 군의관을 힘들게 찾았지만 대부분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당시 부대 관계자 및 예비군 참석자 100여 명을 일일이 찾아내 연락하고, 사망자 주소지인 전남 구례군으로 여러 명의 조사관들이 출장을 나가 마을 주민을 만나는 등 1년에 걸친 조사와 탐문이 이어졌다.



9) 2009년 11월 _ 당시 사건 목격자인 예비군 교관의 집 & 사무실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탐문 끝에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예비군 교관과 조교를 찾아냈고, 이들로부터 “최○○ 씨는 일차려 중 교관의 발에 복부를 맞아 쓰러졌으며, 병원 후송 후 사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1) 2010년 4월 26일 _ 육군 전공상심의위원회 전경 & 내부 사무실



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육군 본부는 육군수사단을 통해 철저하고 적극적인 검증 작업을 하여 권익위의 조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는 사망자 최○○ 씨를 순직자로 인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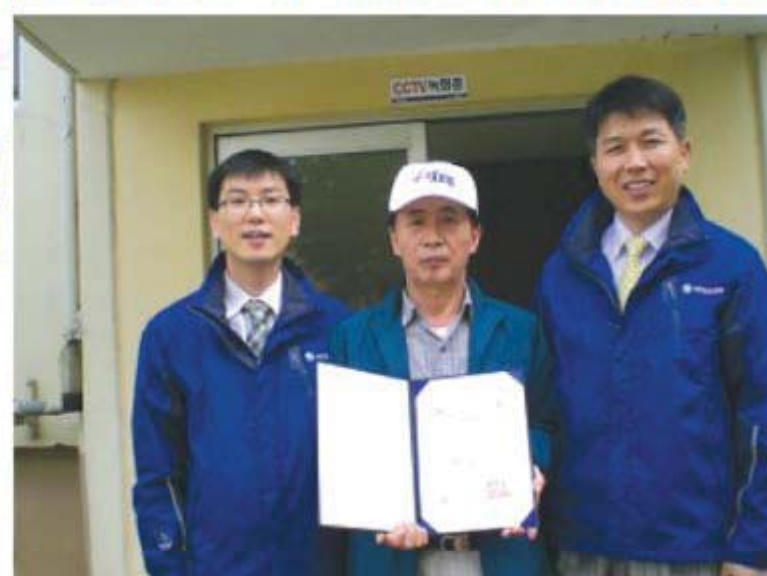
10) 2010년 3월 _ 전남 광주 예비군 훈련소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당시 목격자들과 함께 사고 현장(전남 광주 예비군 훈련소)을 방문하였고, 현장 검증을 거쳐 목격자들의 진술이 진실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건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가해자 이모 상사는 이미 사건 발생 4년 후인 1972년 사망한 상태였다. 권익위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사망자를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시정권고를 하였다.

12) 2010년 6월 3일 _ 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사무실 앞 & 현충원



육군 전공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침내 6월 3일 42년 동안 쌓여 있던 최○○ 씨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되었다. 최○○ 씨의 위패가 대전에 위치한 국립현충원으로 옮겨지게 된 것. 위패 봉안 행사에는 피해자 최○○ 씨의 유가족들과 권익위 및 국가보훈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그간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되기까지 육군 본부를 포함한 많은 기관의 노력과 당시 현장 목격자의 희생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1년여에 걸친 세월과 노력이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한편 권익위에 민원을 낸 최씨 동생은 사망자의 직계 가족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는 없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

본 기사에 실린 특정 군 부대 및 국군 병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전혀 무관함을 독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유가족과 한 마음으로 보낸 1년, 그 노력과 열정으로 의문사를 해결하라 - 국방보훈민원과 서상원 조사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는 군사, 국방, 병무, 보훈혜택이라는 크게 4가지 영역 아래 예비역 및 현·전역 장병, 군무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기타보훈 대상자 등을 위한 업무를 맡고 있다. 주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검색 및 조사하며, 해당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탐문조사를 거쳐야 하기에 오히려 '조사관'이란 말보다 경찰 혹은 '수사관'이란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서민생활 밀착형 업무 스타일을 띤다. 전 조사관(국방보훈민원과 직원)들이 전국방방곡곡을 돌며 기구한 사연을 지닌 민원처리를 위해 오늘도 어제처럼 달리고 있다.

글 · 전채련 편집실 사진 · 조항진

최근 국방보훈민원과는 큰일을 하나 이루어냈다. 예비군 훈련 중 의문사로 숨진 최○○ 씨의 사건을 42년 만에 극적으로 해결한 것. 2009년 해당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통상 고충민원 처리기한이 90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잘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부담 속에 1년여에 걸친 조사를 거쳐 좋은 성과를 얻어냈다. 그 결과, 민원인 최씨의 형은 더 이상 과거 의문사에 묻힌 예비군이 아닌 육군 전공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순직 처리된 국가유공자의 자격으로 국립현충원에 그 당당한 위패를 봉안하게 되었다.



끈질긴 투지, 인내 그리고 애정이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다!

"사실 저도 처음에 예비군 훈련 중에 사망을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김신조 사건 등 남파 간첩들로 뒤숭숭했던 시대였고, 이를 계기로 예비군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된 특수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어제는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리 제가 발품을 팔았던들 육군 본부, 전라남도 구례군청 그리고 현지 주민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적극 나서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결과를 절대 얻을 수 없었겠죠.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랬대! 이처럼 예비군 훈련 중 사망한 의문사를 진상규명하기까지 항상 민원인의 편에 서서 민원 사건 해결에 확신과 투지를 보인 서상원 조사관뿐 아니라, 국방보훈민원과 황운광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의 지원 그리고 민원 사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의 애정과 관심이 오늘의 뜻 깊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제 생각에 이번 민원 건은 감히 누가 가해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시대가 비운의 희생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고인께서 이제야 비로소 국립현충원에서 편히 잠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안타까운 죽음으로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뿌듯하고, 오래도록 쌓아둔 마음의 검은 짐을 덜은 것 같습니다."라며 말을 맺는 서상원 조사관의 눈은 만감의 교차로 촉촉이 젖어 있었다. 향후 이러한 시대적 희생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굳게 다짐하며, 작은 꽃다발이라도 헌화하려 국립현충원으로 바삐 발걸을 옮겼다.

실마리조차 없이 시작된 난항 속 민원 사건 추리 과정……

그렇다면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사건 해결과정,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어지는 황운광 과장님의 말에서 이를 조심스레 엿볼 수 있었다.

"42년 전 예비군 훈련소에서 사망한 민원인 최○○ 씨의 사건은 무언가 커다란 배후가 있으리라 축이 서는 의심스럽고 드문 사례였습니다. 물론 어떤 민원이든 마찬가지로겠지만, 이번 건은 무엇보다 저희 과에서 나름 공도 많이 들이고 고생도 많이 했었죠. 대개 한 명의 조사관이 하나의 사건을 총괄하지만,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제대로 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저를 비롯해 서상원 조사관 이하 여러 조사관들이 사건에 대한 한 가닥의 연결고리라도 찾아보려 전라도 구례, 광주 그리고 함평 등지를 수없이 돌았습니다. 특히 서상원 조사관은 일주일에 3~4일은 전라도에서 보낼 정도로 저희 과 모두 이번 민원 해결에 사활을 걸고 강한 집념을 보였지요."라며 말을 맺는 황 과장님에게서 1년여에 걸친 노고가 묻어났다. 게다가 당시는 주민등록증도 없던 때라 사건과 관련된 증인, 목격자 그리고 가해자를 찾는 과정은 정말로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라고 할 정도. 그래서 본적지라는 낡은 자료만을 근거로 그 광활한 모래밭을 누비며 사건의 퍼즐을 하나씩 짜맞춰 나가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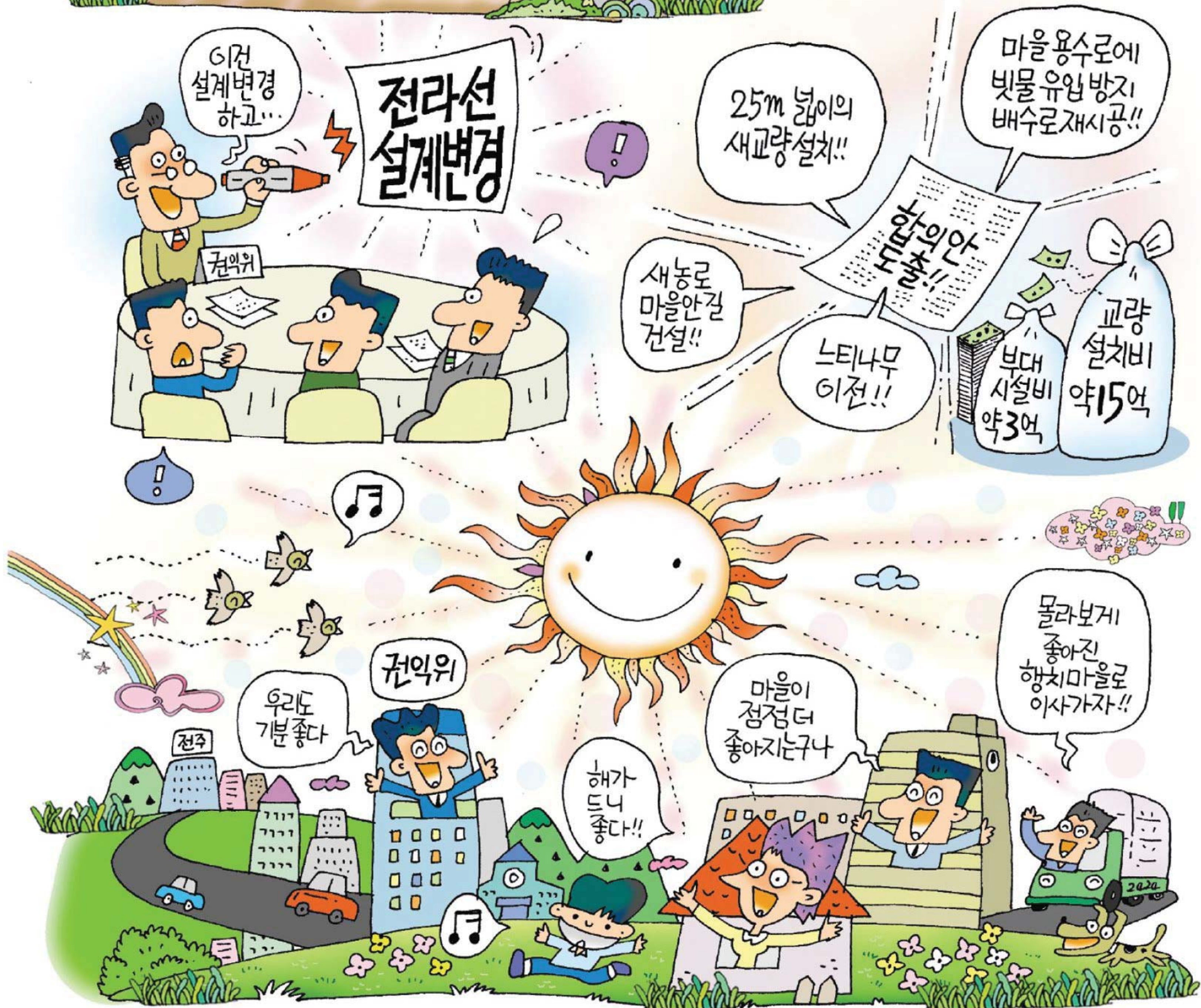
만화로 보는 교통처리



전주 행치마을

30년간 간혀지낸 외톨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기본급·고정급 없는 시간제 우유배달원도 명백한 근로자!!!

Q B지역 우유보급소에서 우유배달원으로 일하던 H씨는 2009년 3월 11일 우유를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피청구인)은 H씨를 근로자로 판단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뒤, 2009년 6월 우유보급소 소장 A씨(청구인)에게 2008년, 2009년에 해당하는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가산금 등 총 541만 74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H씨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글·장병부 편집실

A >> 사망한 우유배달원 H씨, 우유배급소를 위한 근로자로 볼 수 있나?
먼저 A씨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H씨를 비롯해 우유배달부로 일하는 위탁판매원은 자신과 우유배달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품목에 따라 개당 20% 내지 25%의 수수료만을 지급받고 있다. 이들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배달을 위한 오토바이는 위탁판매원 개인 소유로써 관리 비용 또한 위탁판매원이 부담하였다.' 라고 주장하며, 그러므로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생각은 이와 크게 달랐습니다. 위탁판매원에게는 정시 출퇴근 의무가 없는 점, 위탁판매원은 우유보급소 소장 A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타사 우유 배달도 가능하여 우유보급소 소장 A씨와 전속성이 없다는 점 등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A씨가 지정한 지역에서 특정 시간 동안 우유를 배달하고 있어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A씨에 의해 정해지는 점, 채용 공고 및 면접을 통해 위탁판매원을 채용하는 점, 위탁판매원에게는 영업 의무가 없는 점, 원거리 지역 배달원에게는 매월 10만원 내지 20만원의 연료비를 지급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 우유보급소 소장 A씨가 청구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요청' 행정심판 진행과정은……

먼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소송을 기각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관련 법령 내용을 기초로 여러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면, 첫째 우유배급소 소장 A씨와 우유배달원 H씨 사이에 우유 배달 위탁판매에 관해 작성된 구체적인 계약서는 없으나, A씨는 '또 다른 배달원인 K씨와 체결한 위탁판매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H씨와 체결했다' 주장하고, 근로복지공단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이견이 없었습니다.

물론, 위탁판매원 H씨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우유배달 물량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고, A씨의 우유보급소에 손해를 주지 않는 한 타사 우유를 배달하는 것도 가능했으며,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고, 취업 규칙 및 인사 규정 등이 없으며, 배달용 장비를 위탁판매원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특성이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고용주(우유배급소 소장 A씨)가 상대적으로 고용인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어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 규정 등 여러 사항들을 고용주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고용주의 앞선 주장만으로는 '사망한 위탁판매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우유배달을 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점, △위탁판매원이 청구인으로부터 배달지역과 배달세대를 지정받아 우유배달을 한 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우유배달이라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 △위탁판매원에게는 배달처를 유지할 의무가 없는 점, △원거리 배달원에게는 청구인이 월 10만원 내지 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한 점, △위탁판매원은 정기적으로 청구인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하고, 50% 이상 불참 시에는 위탁판매원을 그만 두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위탁판매원이 청구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 해지 사유 중 미수금 발생·청구인의 지시 불이행·판매활동 저조와 같은 경우는 위탁판매원이 우유보급소 소장 K씨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표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통해 우유배달원 H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유보급소 소장 A씨가 청구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등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재결이 시간제 및 임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선진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 중추기관으로 청렴 미래를 열어가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는 동안 짧은 시간 내 압축 성장을 이룩한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IT강국으로서의 명성을 쌓아 나가고 있다. 그 가운데 ‘디지털 대 항해 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가정보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기관장이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전개해나가고 있어 ‘신선한 충격’으로 국민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글·이용규 편집실 사진·이영규

성과중심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오랜 시간 체질화된 관행을 바꾸어 나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다각화되는 글로벌 시대, 변화에 동참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라 생각하면 그 어떤 이유로도 발전과 지속가능을 위한 개선이라는 당면 과제에서 비껴갈 수는 없다. 지난해 두 기관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이해 충돌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을 통해 정보화 중심 기관으로의 도약을 다진 좋은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양 기관이 합쳐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만남과도 같았다. 산술적으로 1 플러스 1이 2인 것과 다르게 무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두 기관의 통합이었기 때문일 터이다. 그러나 조직의 통합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 법. 통합 전부터 갈등을 예상했으나 위계서열, 근무 방식,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방식 등 양 기관의 서로 다른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로 인해 어색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주로 기업과 정부를 상대하는 정보사회진흥원의 일하는 방식과 대국민 서비스 사업을 진행했던 정보문화진흥원의 업무 방식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갈등을 야기했지만 서로 다른 조직문화가 더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봉수 감사역의 지적대로 실제 통합 과정에서 두 기관의 이원화된 구조가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을 조성하면서 통합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감히 ‘총대’를 맨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성과와 역량보다는 연공서열이 우선시 되고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한 조직에서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성과 중심의 리더십은 기관의 통합이라는 난제를 해결한 핵심열쇠가 되었다.

IT일등 기관을 향한 새로운 도약

김성태 원장은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육성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실용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그의 의지는 직원들에게도 전달되어 전체 구성원의 84%가 조직 융합방안에 찬성하였으며, 통합 이후 2개월 만에 조직의 화학적 융합까지 완료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초창기에 우리 진흥원이 겪었던 갈등은 기관 통합에 따른 부작용, 업무공백과 혼선 등의 여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성장통과도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을 무사히 풀어낸 만큼 통합을 계기로 국가정보화 전체



를 아우르는 대표기관으로의 위상을 확고히 해나가면서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법,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 달성, 공공기관 최초 가족친화경영 우수기관(AA) 인증 획득,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우수기관 선정, 노사선진화 우수사례 확립,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선정(보수체계 부문) 등의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거두며 세계 최고의 국가정보화 전문기관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는 단계부터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을 주도해 온 한국 정보화의 산증인이기도 한 김성태 원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사이버 세상은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차별받지 않는 ‘IT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그의 소신은 사내 봉사 모임인 ‘NIA 엔젤스’ 활동으로 이어져,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회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체장애인과 노인 대상의 사회복지 시설, 낙후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IT교육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IT교육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전문성을 발휘한 한국정보화진흥원만의 맞춤형 봉사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청렴은 문화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성과를 거둔 한국정보화진흥원이지만,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는 그리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지난 2006년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지만, 점차 하향곡선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했다. 특히 2008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나타난 8.24점이라는 점수는 그간 성과에 만족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청렴성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소홀한 결과였으며, 내부에서도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청렴도가 하락한 원인을 살펴본 결과, 일부 직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거나 사업 추진 시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직원들의 의식 부족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급선무였다.

“청렴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기존에 행해왔던 관습 혹은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우리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기관장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판단으로 김성태 원장은 CEO가 솔선수범하는 강력한 반부패, 청렴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 전용 차량의 운행 기록과 국내외 출장 내역까지 경비가 발생하는 모든 흔적을 세세하게 공개한 것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는 드문 결정이었다. 김 원장의 청렴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잘 드러나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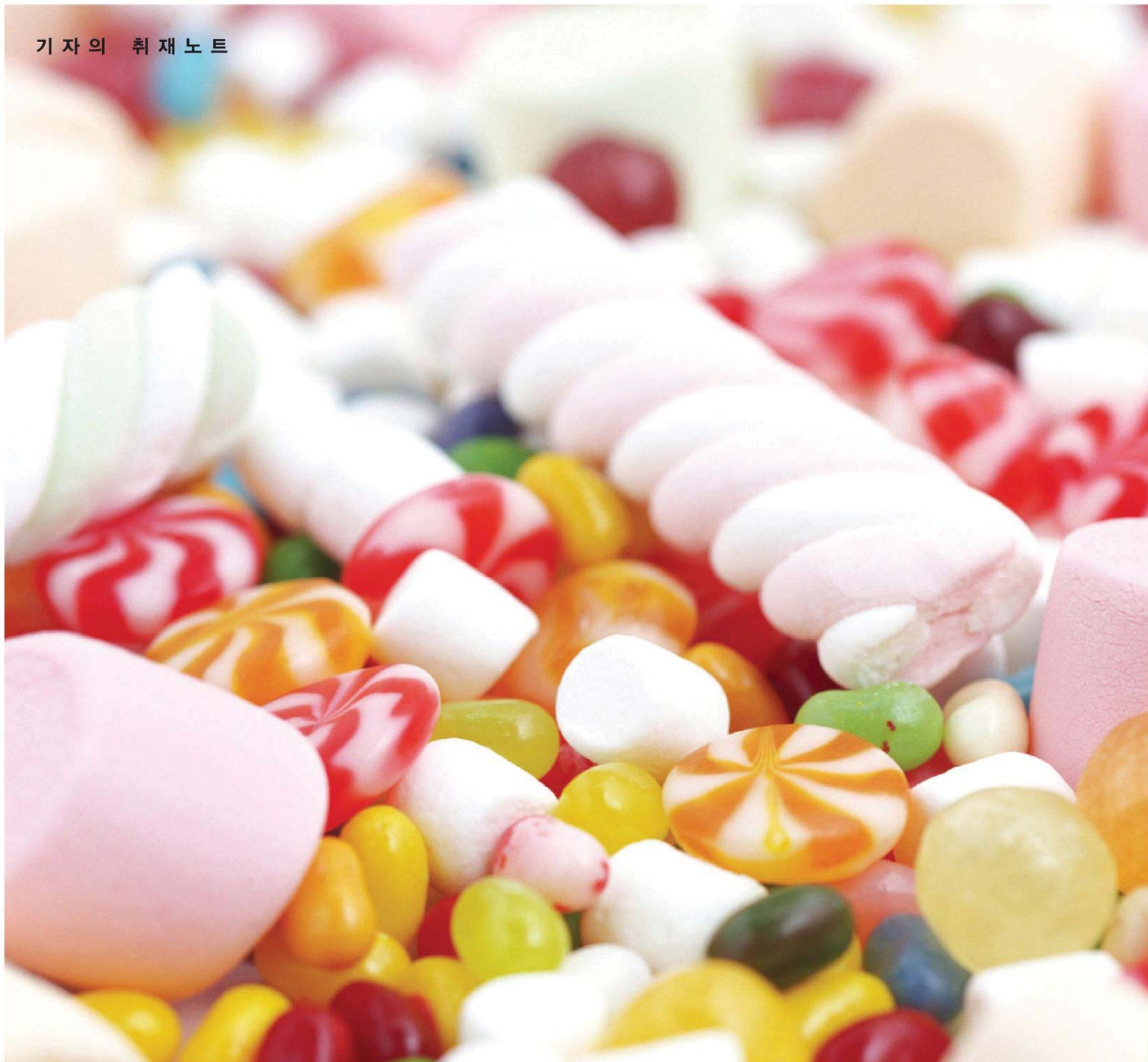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정보화라는 것은 사람이 하던 일을 컴퓨터와 네트

워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정보화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나 부적절한 처리를 예방하는 일에 만전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공직 사회의 청렴도 향상 및 거버넌스 실천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가 높아지고 반부패 국제 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에 부응하는 반부패 청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관장을 포함한 상위직 간부들 개개인이 반부패 청렴 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김성태 원장의 의지는 고스란히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상위 보직자 개개인의 청렴성을 직원들로부터 직접 평가받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하는 ‘상위직 청렴도 측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와 관련한 외부 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의 명단을 공개, 불이익을 주는 등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금 반부패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강력한 엔진을 가동 중에 있다.

“공적인 일에는 투명하게 임하라는 것이 평소 소신이기도 합니다.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하여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간부와 직원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기관장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품어오던 생각이 외부로부터 지표가 제시되었을 때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한 지표를 제시해주어서 청렴에 대한 방향성이 확고하게 마련된 만큼, 이를 좌표로 삼아 청렴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성태 원장은 ‘청렴을 문화’라고 말한다. 그의 표현처럼 지금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마치 한번 시작하면 크게 가속도가 붙는 도미노처럼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바람이 위로부터 아래로 골고루 번져가는 것을 보면 분명 청렴에 대한 의지는 문화임에 틀림없다. 🌈



‘당첨자의 분노’ 편 보도한 MBC <시사매거진 2580> 소비자의 불신만을 야기하는 경품 응모 이벤트의 허와 실

요즘은 마트나 상점, 대규모 체인가맹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막론하고 손님을 끌기 위한 이벤트를 벌이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이벤트 과잉’ 시대다. “대박 행운을 잡아라!”와 같이 대중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광고 문구를 내걸고 해외여행이나 상품권, 영화 티켓 등 각종 푸짐한 선물을 내걸고 진행되는 경품행사가 곳곳에 넘쳐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로 열심히 응모한 뒤 당첨자 결과를 확인하면서 행운의 주인공들에게 부러움의 시선을 보낸다. 하지만 과연 높은 경쟁률을 뚫고 경품에 당첨된 사람들은 정말로 대박의 행운을 거머쥔 것이었을까?

글 · 김혜성 MBC <시사매거진 2580> 기자 사진제공 · 시사매거진 2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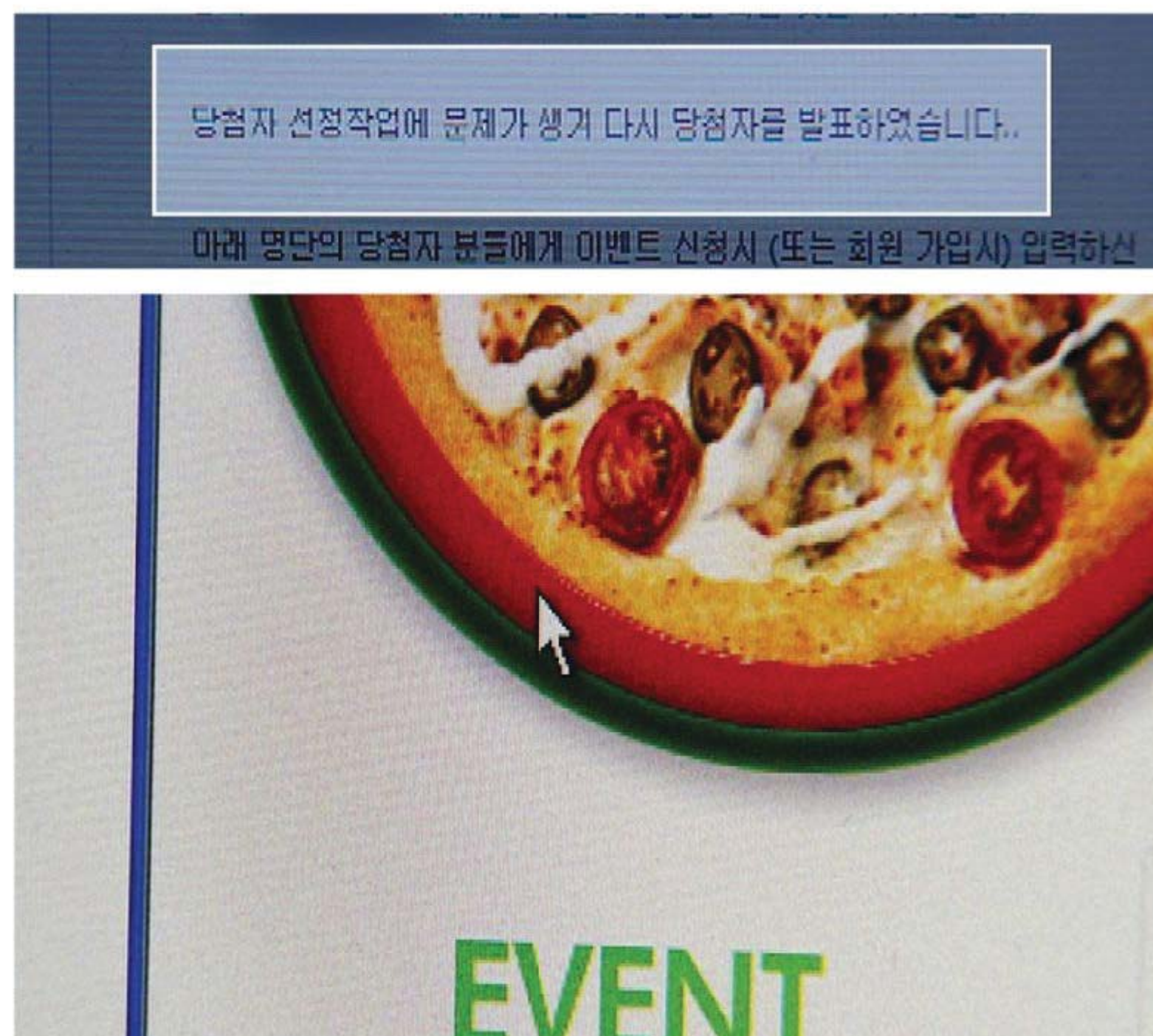
취재의 발단은 올 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오른 한 대기업의 이른바 ‘굴욕’ 사건. 아이스크림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이 기업에서 지난해 10월 진행한 경품행사의 1등 상품은 일본 왕복항공권과 현지 호텔 숙박권이였다. 하지만 경품 수령 후 여행을 떠나려던 당첨자는 성탄절이 성수기에 해당돼 여행을 갈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2박 3일의 일정 중 숙박은 하루분만 제공된다는 황당한 말을 전해 들었다. 당첨자는 “경품행사 공고 내용 중 성수기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고, 숙박이 1박만 된다는 것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소비자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기업에게는 불행하게도, 1등 당첨자는 바로 현직 변호사인 최수진 씨였고, 최씨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회사가 2박 3일 숙박권과 항공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마저도 지키지 않자, 결국 최씨는 이 회사 본사의 에어컨 4대에 압류 딱지를 붙이면서 이 일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최씨는 기업의 태도가 가장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회사 측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소비자를 마치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 기업을 상대로 고의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처럼 대하는 회사 측의 태도가 가장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기업의 달콤한 마케팅 유혹에 뒤통수 맞은 소비자들……

앞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경품과 관련해 소비자를 우롱해온 건들은 취재를 통해 수없이 찾을 수 있었다.



사례1 한 대형마트에서 쇠고기를 사고 이벤트에 응모해 1등으로 당첨된 김 모씨. 멕시코의 유명 휴양지인 칸쿤에 다녀올 수 있는 왕복 항공권에 당첨돼 기쁜 마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크게 한 톱까지 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항공권은 지급되지 않았고……. 대형마트에 문의하면 행사를 진행한 쇠고기 업체에서 알아서 하기로 했으며 책임을 미루고, 업체 측에 연락하면 ‘매번 조금만 더 기다려라! 바로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경품으로 주겠다고 항공권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은 데다 서울이 아닌 도쿄에서 출발해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까지만 가는 항공편이었는데, 이러한 내용들 모두 전혀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결국 ‘2580’이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취재에 들어가자 업체 측에서는 다급히 항공권 대신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무마에 나섰다.

사례2 한 유명 쌀국수 업체에서 2년 전 진행했던 홍콩 여행 이벤트. 쌀국수를 먹는 사진을 찍어 응모하면 100명의 홍콩원정대를 선발해 발대식도 갖고 홍콩 무료 여행의 기회를 주겠다고 TV를 통해 대대적인 광고를 했다. 하지만 이 행사에 당첨됐던 이 모씨는 홍콩 여행은커녕 분통 터지는 경험을 해야 했다. 일단 당첨자 명단이 예정보다 한 달 이상 늦게 발표됐고, 개별 통보에 또 다시 2주가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통보 내용은 본사로 직접 와서 상품을 받아야 하고, 그나마도 닷새밖에 시간 여유가 없다는 것. 그 안에 상품을 받으러 오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된다는 일방적인 이야기에 이 씨는 할 수 없이 직장에 하루 휴가를 내고 물어 물어 본사를 찾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홍콩 여행은 무료 관광이 아니었다. 업체에서는 19만 8천 원짜리 홍콩여행 패키지를 제시했는데, 여행 경비에 맞먹는 항공권 유류 할증료 19만 6500원은 본인 부담이었고, 5만 원 정도의 가이드 팁도 별도로 내야 했다. 황당해하는 이씨에게 회사 측은 여행을 가지 말고 20만 원짜리 쌀국수 시식권을 받는 게 어떠냐고 종용했고, 나중엔 그것도 문제가 생겼다고 그냥 현금을 계좌로 넣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결국은 현금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사례3 한 유명 피자체인의 홈페이지에서 매달 진행되는 영화티켓 증정 이벤트. 피자를 주문해 먹은 고객만 응모할 수 있는 이 행사에 영화를 좋아하는 김 모씨는 꾸준히 응모에 참여해 여러 번 당첨에 성공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당첨되는 일이 갑자기 뚝 끊기자 김씨는 당첨자 아이디를 일일이 조회해 봤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50명 당첨자 전원이 모두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 즉, 가짜 아이디로 드러났다. 화가 난 김씨는 업체에 항의했지만, 업체 측의 답변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것. 이벤트를 맡긴 외주업체의 직원이 가짜 아이디를 조작해 영화티켓을 빼돌렸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이벤트를 외주로 맡겼다 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소비자들에게 이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자 체인업체 측은 당첨자를 새로 뽑는 선에서 사건을 슬쩍 넘겨 버렸다.



경품행사, 소비자와 기업이 맺은 **엄연한! 법률 계약**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이와 같지는 않겠지만, 취재 과정에서 느낀 점은 소규모의 동네 상점이든 대기업이든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였다. 이벤트를 벌이고 판촉 행사를 진행할 당시에는 ‘손님이 왕’이라며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만, 일단 이벤트가 종료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무성의한 태도는 당첨으로 인한 큰 기쁨을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변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기업을 외면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쌀국수 업체 이벤트에 당첨됐다 돈과 시간만 날렸다는 이 모씨(사례2)는 그 전까지 단골이었던 그 쌀국수 체인점을 이제는 쳐다 보기도 싫다며 절대 가지 않는다고 했고, 대형마트 쇠고기 판촉 행사에 당첨됐다 5개월 넘도록 상품을 지급받지 못한 김 모씨(사례1)는 “당첨이 안됐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았을텐데, 괜히 당첨됐다고 해서 기대했다가 큰 실망만 하게 됐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최수진 변호사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경품 이벤트도 엄연히 ‘법률적인 계약’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기업들이 이벤트를 처음 공고할 때부터 세부적인 내용들을 명확히 기재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일단 한 번 공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같은 약속을 무단으로 어겼을 때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경품을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베풀어주니까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버리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내용에 대해 주장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변호사여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들도 자신이 획득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고 최 변호사는 강조했다.

경품행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누구든 한번쯤, ‘과연 저 이벤트가 공정하게 진행되어 당첨자들이 실제로 경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번 취재를 통해 경품 이벤트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물건을 구매하게 하거나, 소비자들을 기업 홍보에 이용만 하고 소비자와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일부 기업들의 물지각한 행태에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번 ‘대기업 굴욕’ 사건은 이런 행태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 이처럼 기업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소비자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업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강력하게 주장해나가야만 그 해결책이 보일 것 이다. 🌈



더 투명한 세상 더 행복한 미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행/복/누/림

희망 인터뷰
우리가 먼저
브라보! 대한민국!
생활법률 110
통째로 보는 책 한 권

35 산악인 엄홍길
38 기업 메세나, 이제 규칙을 하나 둘 만들어갈 때!!!
41 한국 전통혼례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44 휴양지 펜션 주차장에서 도난당한 자동차,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46 '2010' 부모들의 교육을 바로잡고자 5백년을
거슬러 깨어난 <엄격한 율곡씨>



산악인 엄홍길

산이 **희망을** 나누어 가지라고 했다

엄홍길 대장은 대한민국의 대표 산악인이며 세계 산악인의 표상이다. 그는 8,000미터 영봉(靈峰) 16좌에 올라 자연의 영험한 신비를 몸으로 느낀 인물이다. 그가 느낀 자연의 신비는 그 영봉 아래 펼쳐진 세상에 대한 관망이 아닌, 품고 살라는 울림으로 되돌아왔다. 그 울림은 26년 동안 38번 도전해서 20번 실패하고 18번 성공한 처절한 사투 끝에 나온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는 ‘희망을 나누어 가지고 살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된다. 그가 말하는 희망은 무엇인지 수유리 계곡에서 만나 들어 보았다.

글 · 김현주 편집실 사진 · 최일규



수 유리 아카데미하우스 옆, 작은 계곡 나무벤치에 앉은 그의 등 뒤로 등산객들이 하나둘씩 산을 오르고 있었다. 나무벤치 주변에는 먹다 버린 음식물과 빈 컵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로 ‘사람들이 참, 딱하기도 하네’ 한다. 그곳은 산이고,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쉼터다. 그의 혼잣말은 산에 대한 안타까운 예의를 가리킨다. 그곳이 작은 산이건 8,000미터가 넘는 산이건 다를 것은 없다. 작은 산들이 모여 큰 산을 이루고, 한발 한발 내딛는 그 걸음 위에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르면 마음 안에도 산이 머물지 않는다. 그는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수십 번씩 고른 숨소리가 한데 모여 16좌를 등정했다고 한다. 그렇게 26년 동안 산을 품고 한 걸음씩 내딛어 세계의 영봉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산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산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죠. 그게 없으면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와도 남는 게 하나 없어요.”

산이 나를 낳추어 살라고 가르쳤다

그가 세계 최고봉 16좌의 설산을 완등하고 남긴 것은 뭘까.

“16좌를 완등하면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산이시여, 나를 살려만 준다면 저 어려운 이웃과 문맹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형제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만 주세요. 저 아래 끝없는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며, 저 깎아지른 절벽을 올려다보며 늘 그렇게 산과 약속을 했지요.”

그의 고백은 자연에 대한 신비를 향한 기도였으며 그 산과의 약속이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해서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그가 산과 약속한 처연하고도 피 끓는 듯한 짙은 독백은 산을 정복한 영광의 대가가 아니었다. 그의 약속은 지난 5월에 출간한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는 책에 절절히 녹아 있다. 25살의 젊은 청년이 처음 에베레스트 동계 등반에 나선 이후 26년 동안 산과 함께 해온 그의 자전적 기록이자 고백이다.

“이제 더 이상 오를 고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서 돌아온 것이 지금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비로소 내가 아직 살아 있음을 실감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나 자신을 일깨웁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는 산에게 고백한 약속을 지키려고 엄홍길의 <휴먼재단>을 설립했다. 그에게 오늘의 영광을 준 히말라야와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사는 이들, 그리고 파키스탄, 네팔 등 개도국의 교육지원 및 의료지원 사업이 주요 핵심이다. 국내 산악인유가족 지원 사업과 청소년 희망캠프도 포함돼 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네팔의 ‘팡보체휴먼스쿨’이었다. 지난 5월 5일 준공식을 가진 이곳은 4개의 교실과 1개의 강당으로 이루어진 초등학교다. 학교를 짓는 데 꼬박 1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그는 왜 그곳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을까.

“그동안 나는 산에 오르며 도전하는 자만이 실패와 좌절을 알고, 성공의 기쁨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4,060미터 팡보체에 초등학교를 지었는데 그곳은 나와 등반하다가 추락사한 셰르파 술딤 도르지가 살던 히말라야 고산마을입니다. 그가 살던 마을에 초등학교를 지어 자라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곳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살고 있죠. 나를 위하다가 목숨을 잃은 셰르파 도르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물일지도 모르죠.”

공무원들 강직을 너머 융통성 그리고 너그러움 기대하고 싶어

남편 도르지를 잃은 미망인 학파데기는 아직도 팡보체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팡보체휴먼스쿨의 기공식을 하



던 날, 그는 행사를 마치고 강당에서 차를 마시던 중 우연히 불구의 한 아가씨를 만났다. 아가씨의 이름은 밍마 참지(19살), 당시 그녀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차를 서빙하고 있었다. 그가 사연을 물으니 높은 언덕에서 떨어져 골반이 나간 뒤, 어떤 치료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밍마 참지의 꿈은 가난한 고향마을의 아이들을 돌보고 아픈 노인들을 보살피는 간호사였다.

“그곳 병원에 가서 x레이를 찍었는데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필름을 한국으로 가져와 알아 보았더니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데리고 와서 수술을 시키고 재활을 하는 도중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 자격증도 따고 지금은 고향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고 있지요.”

그가 밍마 참지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 병원에서 재활을 시키는 동안에 겪은 일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병원에서 1개월만 재활을 더하면 완치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출국 기간이 다가온 거죠. 한 달만 연장하면 완치가 되는데 공무원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무료로 수술도 하고 항공료 들어가며 네팔에서 데리고 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갔다가

돌아와 재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카트만두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까지 오는 시간은 이틀이면 되지만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팡보체까지는 보름이 넘게 걸려요. 이런 사정을 얘기하며 아무리 사정해도 관련 기관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법이 허용을 못 한다는 거죠. 이런 답답한 노릇이…….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런 일에 좀 너그러워졌으면 해요. 정직한 것과 민의를 수용하는 너그러운 태도는 다르죠. 정직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태도와 약한 자들을 위한 너그러운 수용은 같은 말이죠. 희망을 전제로 했을 때 융통성도 공정한 태도에 속하겠죠. 공무원들이 좀 그런 신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가 ‘휴먼재단’을 통해 희망을 나누고자 하는 세상은 자연사랑, 인간사랑, 꿈과 희망을 가진 불굴의 도전정신이다. 산이 그를 살려 주었으니 좌절과 고통이 밀려와도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꿈을 향해 계속 걸어가겠다는. 그에게는 이 세상이 희망이며,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할 곳도 바로 이 땅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의 산’에 오르기 위한 베이스캠프를 계속 이 땅에 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업 메세나, 이제 규칙을 하나 둘 만들어갈 때!!!

기업이 문화예술계나 공연계를 돕는 일을 뜻하는 메세나(Mecenat)는 고대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의 정치가이자 시인인 마에케나스(Maecenas)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 그는 당대 최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했으며, 죽으면서 남긴 막대한 재산을 문화 예술 지원에 내놓기도 했다. 이런 전통은 이후 중세 이탈리아에까지 면면히 이어졌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발원지인 피렌체의 영주로서 당대 예술가들을 후원한 메디치는 미켈란젤로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탄생시킨 밑거름이 됐다.

글·중앙일보 경제부문 홍승일 부장

필자가 몸담은 일간지의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메세나’라는 단어를 검색해봤다. 올 5월까지 1년간의 기사 가운데 메세나에 관한 기사는 30건에 가깝게 검색됐다. 이들 중에는 경제면이나 문화면·인물면의 머리를 장식한 큼지막한 기사도 10건 가까이나 됐다. 기업 메세나 운동은 매스컴이 큰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제 우리 주변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보태져 일찍이 1994년 한국기업메세나협회가 창립됐지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메세나 활동에 들어간 것은 2000년대 초반 고 박성용 금호아시아나 명예회장의 회장 재임 시절 때부터였다. 그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재계 총수나 대표들에게 일일이 전화 다이얼을 돌려 메세나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해줄 것을 호소했다. 덕분에 100여 곳에 불과하던 회원사는 2년 만에 200개 가까이로 늘었다. 한 가지 예술 장르를 특화해 적극 후원하는 ‘1사 1메세나 운동’이라든가, 병원·시골학교·양로원 등 고통 받고 소외된 현장을 찾아 음악회를 열거나 문화 봉사를 하는 ‘찾아가는 메세나’ 같은 아이디어로 한국적 메세나 운동의 지평을 넓히기 시작했다.

투명사회 건설에 기여한 ‘문화 접대’

메세나 운동이 문화예술공연계의 진흥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바로 기업의 접대 문화 개선이다. 거래처나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매하는 문화예술 현장의 입장권에 대해 수년 전부터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접대 문화’가 ‘문화접대’로 급격히 탈바꿈해나갔다. 이제 ‘문화 경영’ 혹은 ‘문화 마케팅’을 구호로 내세우는 대기업들의 변화 양상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최근 중소기업계에서조차도 공연표 등을 구매하는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달라고 정부 측에 건의할 정도로 문화 접대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메세나의 흐름이 급물살을 타다 보니 이를 사회공헌의 한 유행 사조로 보는 가벼운 시각, 문화예술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군중심리로 너도나도 참여하려는 분위기 등이 감지된다. 회사 형편이 좀 괜찮다고 선심 쓰듯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손길을 내밀었다가 사정이 약간 어려워지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를 적잖이 볼 수 있다. 또한 협찬을 빌미로 창작물 자체에 이러쿵저러쿵 지나친 간섭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남을 돕는 일에도 품격이 있다. 특히나 문화예술을 돕는다면 최소한의 식견과 예의를 갖추야 할 것이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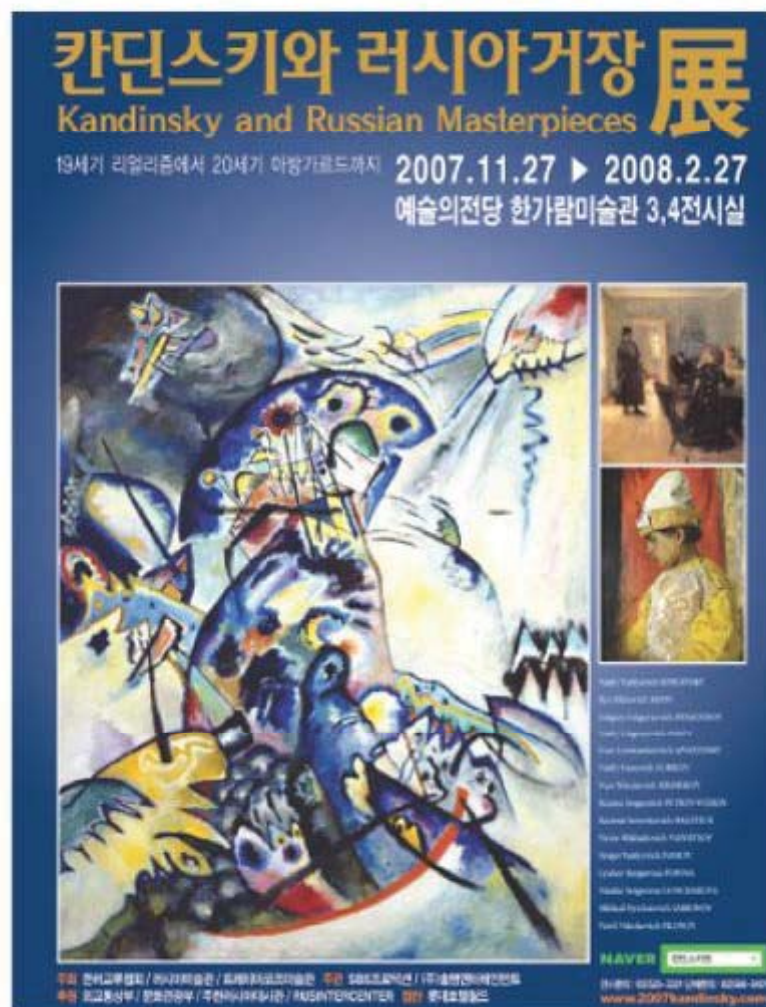
람만이 예술을 도울 수 있다”는 프랑스 사상가 알베르 카뮈의 경구가 떠오른다. 수년간 메세나 운동이 업계와 문화예술계에 확산되는 과정을 지켜본 바에 따르면 기업 입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생, 전문성, 전략이 그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상생의 메세나

먼저 기업이 문화예술계를 돕는 행위를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거래 또는 유무상통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또한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창조적 작업에 몰두하는 대부분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자존심과 독자성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공연계 사정에 밝은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다. 오래 전 서울의 한 극단이 ‘동물의 사육제’라는 연극을 기획하면서 한 회사의 협찬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연극을 제작해 시연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협찬 회사 측에서 회사의 상징동물인 토끼가 연극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안 까닭이었다. 극단은 부랴부랴 원작에도 없는 토끼 배역을 집어넣어 협찬을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의 결혼’,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명작들은 ‘피’나 ‘죽음’ 같은 부정적인 제목의 이미지 때문에 보험업계나 항공운송업계의 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이밖에도 협찬의 대가로 좌석을 과도하게 요청하는 관행도 그 개선이 시급하다. 몇 년 전에는 대형 뮤지컬 협찬사가 고객과 거래처를 위한 사은품 용도로 공연표를 다량 요구하는 바람에 때마침 일반인의 구매 수요가 크게 일었을 때 좌석을 구하지 못해 기획사 측이 찢찢매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보다 잘 알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메세나의 전문성

외국의 선진 대기업들은 대개 메세나 전담 부서나 조직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사회공헌 부서의 한두 명 정도만이 메세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지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메세나와 다소 동떨어진 홍보·마케팅·총무 부서의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함께 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이 같은 업무를 맡기도 한다. 대기업의 메세나 담당자조차도 2~3년 정도 직무를 맡다가 다른 직무로 옮겨 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무엇을 지원할지 구상을 해낼 수 있다. 최신 문화공연계의 조류도 모르고, 예술작품에 대한 최소한의 심미안도 갖추지 못한 채 메세나 지원을 위한 대상을 찾기는 정



말로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 ‘業’의 성격에 맞는 지원 대상을 고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례로 보청기 회사가 아카펠라 그룹을 지원한다든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현대중공업이 울산 지역문화 활성화에 힘쓴다든지 하는 예들은 그 회사 고유의 특성이나 사업 환경을 최대한 감안했기에 더욱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좋아 보이면 이걸, 저게 좋아 보이면 저걸 지원하는 ‘철새 메세나’는 금물이다. 필립모리스를 계열사로 둔 미국 알트리아 그룹이 1960년대에 당시 외면당하던 현대무용을 한발 앞서 지원해 오늘날 ‘현대무용의 산파’라는 칭송을 듣고 있다. 이처럼 메세나의 성공 여부는 예술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선견지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기업의 수익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전략적인 메세나

메세나가 확산되면서 기업의 착안점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에 따르면 메세나 운동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뉜다. 사회공헌, 마케팅, 경영 전략에 중점을 둔 메세나다. 사회공헌에 주안점을 둔 메세나는 삼성그룹의 경우다. 삼성은 ‘한국 문화예술의 격을 한 단계 높인다’는 비전 아래 큰 그림을 그린다. 마케팅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는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클래식 음악회 집중 개최를 들 수 있겠다. 캠리·코롤라 같은 값싸고 실용적인 승용차 업체라는 이미지에서 렉서스 등의 고급 승용차도 만드는 업체라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1980년부터 세계 각지의 클래식 공연을 대거 후원했다. 이를 통해 도요타는 독일회사들처럼 고급승용차 회사라는 이미지를 세계만방에 효과적으로 전파했다. 경영 전략 개념의 메세나는 기업문화와 기업 비전을 설정하는 데 주력하는 경우다. 미국 유니레버는 직원 복지를 비롯해 임직원의 창의력과 직무 능력을 제고하는 데 메세나를 적극 활용했다.

이처럼 성공적인 메세나를 위한 전략 탐색 단계에 뜻을 들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메세나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1960년대에 설립된 전미예술기금(NEA)은 예산의 무려 40%를 지원금이 아니라 어디에 지원할지 연구하고 탐색하는 데 쓰인다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제한된 재원으로 메세나를 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메세나 전략이 시급하다. 근래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 대중성이 강한 대형 공연에 큰손들의 협찬이 몰리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연극·무용·국악 등 이른바 소외 장르는 후원자를 찾지 못해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메세나도 흥행과 성공이 담보된 대상 이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벤처 메세나에 눈을 돌릴 때다. 경영난으로 결국 부도를 내긴 했지만 문화·캐릭터 기업 싹지의 경우 젊고 이름 없는 설치 미술가들을 적극 지원해 이들이 유명해지면서 메세나의 효과를 톡톡히 보기도 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외국계 기업으로서 한국의 전통음악을 지원해 차별화된 메세나를 선보였다. 이러한 예들이



모두 ‘벤처 메세나’의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나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도 보다 관대하면서도 자세를 낮춘 적극적인 태도로 예술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메세나의 성공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



한국 전통혼례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혼례란, 성인이 된 남녀가 부부로 맺어져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자격을 사회적으로 공인 받는 의례이다. 예로부터 혼례는 삼강오륜의 근본이며, 시초를 바로잡는 도리라고 하였다. 따라서 혼례를 치를 때에는 평소 입지 않는 의관, 즉 벼슬아치들이나 입을 수 있는 사모관대를 차려 입었는데 이는 그만큼 혼인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혼례 역사가 언제부터 또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자세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신부 집에서 혼례를 행하고 신부가 자녀를 출산하여 성장한 뒤에야 시가로 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이른 기록으로 여겨진다. 이후 우리나라 혼례 풍습이 체계적으로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은 『주자가례』가 도입되기 시작한 여말 선초라 볼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주자가례』를 토대로 『국조오례의』에 따라 왕실과 대부, 사(士), 서인(庶人)의 혼례 규정을 만들어 이를 행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도암 이재’ 선생이 『주자가례』와 고금의 예를 정리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사례편람』을 편찬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혼례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전통혼례는 가문이나 지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모두 『사례편람』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전통혼례는 크게 혼담이 오가는 ‘의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혼례의 모습인 ‘대례’, 시택으로 돌아가 폐백을 올리는 의식이 포함된 ‘후례’ 등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정성스레 혼례를 준비하는 의혼

의혼이란, 양가에서 중매인을 통해 상호 의사를 타진할 때부터 대례를 거행하기 이전까지의 절차로서 혼담·납채·연길·납폐 등이 포함된다.

혼담(婚談, 선 보기)이란, 양쪽 집안을 잘 아는 중매쟁이가 양가를 오가며 혼인 의사를 타진하고 중매하는 것을 이른다. 이렇게 혼담이 성사 되면 납채를 행하게 되는데, 납채(納采, 四柱 보내기)란 신랑 될 집에서 신부 될 집에 공식적으로 혼인을 청하는 예로서 서식에 따라 주소·관직·성명을 적고 간단한 문구로 혼인을 하게 되어 기쁘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다. 신부집에서는 납채에 대한 답례로 혼인날을 잡아 신랑집에 택일단자를 보내는 연길(涓吉=擇日)을 행한다. 길일을 점쳐 보낸다는 의미로 연길이라 칭하는 것인데, 속칭 날발이(순우리말)라고도 한다. 끝으로 의혼의 마지막 단계인 납폐(納幣)를 행하게 되는데, 이를 납징이라고도 한다. 납폐는 혼인의 증표로 신랑집에서 납폐서(納幣書)와 폐백(幣帛: 청색 비단과 홍색 비단)을 신부집에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 함에 넣는 물건은 지방과 사회계층, 빈부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넣는 것은 신부의 상·하의 두 벌과 폐물, 혼서지(婚書紙)이다. 혼서지란 일종의 혼인문서이다.



전통혼례의 정수를 볼 수 있는 대례

의혼의 과정이 끝난 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혼례의 모습인 대례를 행하는데, 옛날부터 혼인식을 초례·대례라 하였고 그 장소를 초례청·대례청이라 하였다.

대례는 신랑과 그 일행이 혼인식을 올리기 위해 신부집에 가는 초행(醮行)을 시작으로 그 막이 오른다. 신부집에 도착한 신랑은 전안례를 행하게 되는데, 전안례(奠雁禮)란 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바치는 예를 말한다. 이 때 본래 전통혼례에서는 산 기러기를 썼다고 전해지나, 산 기러기가 없을 시 나무 기러기(木雁)를 대신해 사용할 수도 있었다. 혼례에 기러기를 바치는 전안례는 준비를 막론하고 그 절차를 모두 행하였다. 전안례에 사용되는 기러기는 믿음을 지켜 제 짝을 저버리는 일이 없고, 암수의 사이가 다른 어느새보다 좋을 뿐 아니라 짝이 죽으면 다른 짝을 구하지 않는 영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부에게 남편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와 신랑, 신부 모두 부부 간의 신의를 영원히 지켜 나가라는 의미를

를 전하고자 혼례의 으뜸 예물로써 기러기를 생활의 본보기로 삼은 것이다. 교배례(交拜禮)란, 전안례 후에 서동부서(婿東婦西)라 하여 신랑은 동쪽에 서고 신부는 서쪽에 서서 초례상을 마주 보고 교배하는 의례이다. 교배례 때 초례상에는 쫓대 한 쌍, 소나무·대나무(松竹) 또는 사철나무를 꽂은 꽃병 한 쌍, 장담·암담, 쌀·밤·대추·쌀, 콩, 팥, 떡, 술잔 등을 놓는다. 담을 초례상에 올려놓는 것은 잡귀와 부정을 막고 아들딸 많이 낳아 행복하게 잘 살라는 뜻이다. 혼인식의 마지막 절차로는 합근례(合簪禮)를 치렀는데,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는 의식을 말한다. 모두

3잔을 나누는데 처음 2잔은 일반 술잔을, 마지막 잔은 표주박을 사용한다. 원래 하나였던 표주박을 2개로 쪼개어 신랑과 신부를 위한 각각의 잔으로 사용하는데, 술을 교환하여 마심으로써 부부로 하나가 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합근례가 끝나면 혼인식은 일단 끝나는 것이다. 혼인식 날에는 신부집 마을의 젊은이들이 신부집에 모여 들어 '신랑다루기'를 하는데, 이것을 동상례(東床禮)라고 한다. 동상례는 신랑에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 답이 신통하지 않으면 신랑의 다리를 끈으로 묶어 발바닥을 방망이나 몽둥이로 치며 장난을 치는 것이다. 신랑이 소리를 지르면 장모가 나와 말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대접한다.

신부가 신랑 가족과 하나가 되는 후례

혼례의 중심인 대례가 끝나면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는 의식과 신랑집에서 행하는 의례가 남는다. 한마디로 후례란, 신부가 시집으로 들어가는 예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신부가 시집으로 오는 것은 우귀 또는 신행(新行)이라 한다. 신부가 우귀할 때에는 신부를 비롯하여 상객·하님·짐꾼이 행렬을 이룬다. 신부가 시집에 도착하면 간단히 요기를 하고 큰상을 받는다. 신부의 큰 상 받기가 끝나면 사당배례를 하여 새 며느리를 맞아 드렸다는 것을 조상들에게 알리는 의례 절차를 행한 뒤 시부모를 만나 뵙는 현구고례를 한다. 신부는 자신의 집(신부집)에서 장만해온 닭찜·안주·밤·대추·과일 등을 상 위에 차려 놓고 술을 따라 올리며 시부모에게 절을 한다. 이를 폐백이라 하는데, 현구고례(見舅姑禮)가 곧 폐백이다. 어른들은 절을 받으면서 예물을 주거나 대추나 밤을 치마 밑에 넣어주며 축원을 한다. 혼례의 가장 마지막 절차라 할 수 있는 근친(覲親)은 신부가 시집에 와서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을 말한다. 우귀한 지 1주일, 1달 또는 1년 만에 가기도 하는데, 근친 때는 신랑이 동행을 한다. 엄밀히 말해 신부가 근친을 다녀와야 비로소 혼례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통혼례는 현대의 서구식 결혼에 비해 그 절차가 길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 절차마다 조상과 부모에 대한 예를 다하려는 전통사상이 반영되어 있어 큰 의의를 지닌다. 특히 전통혼례는 혼례를 남자와 여자의 단순한 성혼이 아닌, 두 가문의 결합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결혼을 더욱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책임감을 준다. 이에 따라 전통혼례에 담긴 사상과 문화를 후손들과 세계인들에게 널리 전하며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려는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Information

「전통혼례 및 신행길놀이 재현」행사 관련 정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혼례를 복원하여 2001년부터 「전통혼례 및 신행길놀이 재현」 행사를 인사동 등에서 진행해오고 있다. 이 행사는 직접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행사로서 내·외국인에게 아래와 같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필동 한국의집에서도 전통혼례를 직접 치를 수 있도록 한옥 내에 혼례장을 마련해 우리 고유의 품격 있는 의례를 집전해주고 있다.

① 행사 일정

- 2010. 4. 16 (금) ~ 10. 30 (토)

② 행사 장소 및 시간

-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마당 / 매주 금요일 14:00, 토요일 13:00

※ 야외 행사이므로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 7, 8월(휴서기)에는 휴연, 신행길놀이는 토요일에만 재현

③ 참여 방법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홈페이지(www.chf.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전통혼례 및 신행길놀이 재현」행사 체험 문의 (02-3011-2156)

- 필동 한국의집 전통혼례 문의 (02-266-9101)



휴양지 펜션 주차장에서 도난당한 자동차,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빠르게 찾아온 초여름 날씨로 인해 휴가 계획을 세우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가족 그리고 연인과 함께하는 휴가를 위해 펜션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한껏 부풀은 기분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그 일례로 도난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물건일 경우, 그 상심과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여러 사례들을 통해 휴양지에서 종종 발생하는 주차된 차의 도난 사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글 · 안현진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먼저 펜션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이를 절취한 범인에게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을 잡을 수 없거나 잡았더라도 범인이 자동차의 파손 등을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펜션 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이용자가 자가용을 펜션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을 펜션 운영자에게 알리고 열쇠를 맡긴 경우!

펜션 운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공중접객업자에 해당되고, 펜션 운영자와 펜션 이용자가 체결하는 숙박 계약은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펜션 이용자가 펜션 운영자에게 주차 사실을 알리고 열쇠를 맡겼다면 펜션 운영자는 차량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펜션 이용자가 단순히 펜션 전용 주차장에 주차만 한 경우!

펜션 운영자가 펜션 이용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용 주차장에 관리인이나 감시인 등을 두지 않았다면 그 과실이 인정되며, 펜션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펜션 이용자는 펜션 운영자에게 적극적으로 주차 사실을 알리고 이를 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도난사고 방지



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상계가 인정되어 손해액 중 일부만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광주고등법원 1989. 2. 15. 선고 88나3986 판결'이 있습니다. 여관 투숙객의 주차상황 및 차량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인이나 감시인 등을 두지 않은 채 주차장 출입구에 쇠고리 줄을 쳐 놓는 정도로만 대비해오다가 여관 투숙객의 승용차가 도난당한 경우, 여관 운영자는 손해액의 40%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펜션 운영자가 펜션 전용 주차장에 '차량 관리는 본인이 하고 도난 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게시한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은 효력이 없고, 손해배상청구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참고로, 펜션 이용자가 자동차가 아닌 고급시계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펜션 운영자에게 맡기지 않고 있다가 펜션에서 도난당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펜션 운영자는 펜션 이용자에 대하여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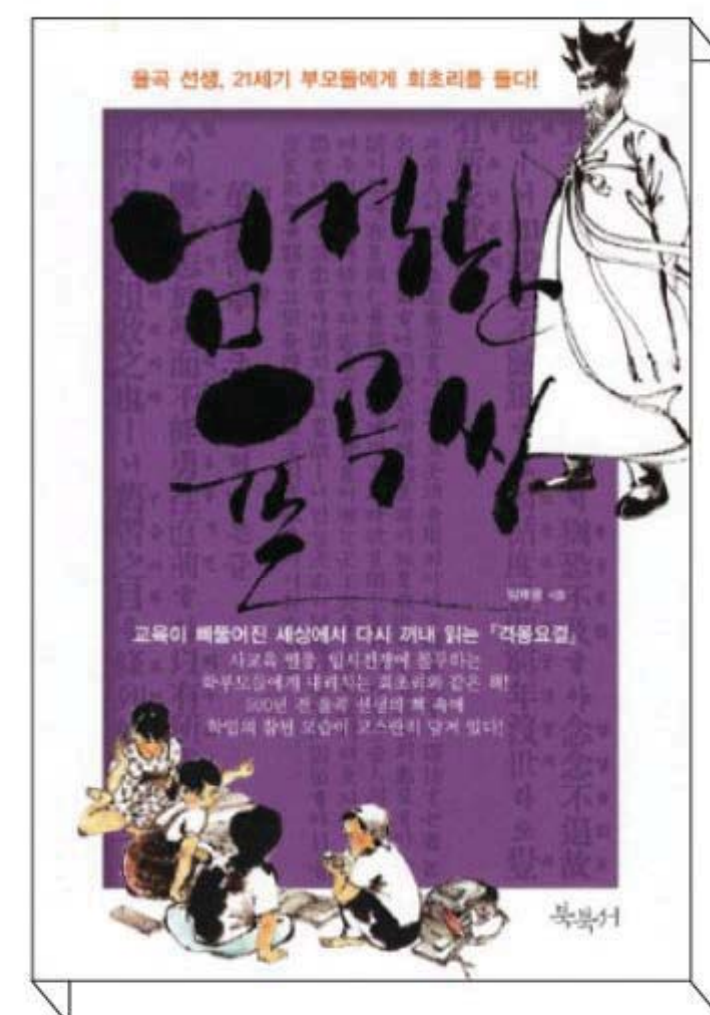
상법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앞으로 휴가 때 펜션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가급적 주차관리인이 있는 곳으로 위치를 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또 펜션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뒤, 펜션 운영자에게 주차 사실을 알리고 열쇠를 직접 맡기는 일을 습관화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만약 펜션 운영자에게 차를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난을 당했다면, 펜션 운영자가 차량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음을 펜션 이용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현장 사진을 찍거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2010’ 부모들의 교육을 바로잡고자 5백 년을 거슬러 깨어난 <엄격한 율곡씨>

우리가 숨 쉬는 오늘은 무한경쟁을 강요하면서 부모에 의해 학업이 주도되는 시대다. 이 책은 소설가이자 아동작가, 교양작가로 활동 중인 저자 임채영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 학자 율곡 이이가 쓴 학업 입문서이자 수신서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재해석한 자녀교육서이다. 이 책은 부모들에게 과연 자신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강요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만들고, 자녀의 학업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데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을 깨닫게 할 것이다.

글 · 민정규 북코스모스 편집장



임채영 지음 / 북북서

입지(立志) :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

“타고날 때 사람의 마음은 하얀 백지처럼 비어 있고 그 정신은 신령스러울 정도이다. 이것은 타고날 때 이미 세상에 정해진 심지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심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서 어찌하여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자신의 심지를 어질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뜻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입지(立志)이다.”

요즘 부모들은 입버릇처럼 공부할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놀이에만 집중하라고 말한다. 아이에게 성취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공부를 하면 ‘놀이 시간’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아이를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대가 없는 학업’은 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스스로 학업에 정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율곡은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학업을 하고자 하는 뜻을 올바르게 세우고 기본자세를 갖추라고 강조하였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 아이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학업의 뜻을 접지 않을 것이다.

독서(讀書) : 부모 스스로 개천(開川)이 되려 하는가?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좋은 논밭을 사들이지 말라. 좋은 논밭에서 거둬들인 천 섬의 곡식을 광에 쌓아두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글 가운데 본시 천 가지의 곡식이 있느니라.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고 집안에 황금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은 다 자신의 육신을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아무 것도 아니다. 글 가운데 본시 황금으로 된 집이 있느니라. 대문 밖에 나갈 때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라. 글 가운데 수레와 말이 떨어기처럼 많으니라. 장가 들고 싶으나 좋은 중매가 없다고 탓하지 말라. 글 가운데 얼굴이 옥 같은 여자가 있느니라. 참된 가치는 바로 책 속에 있는 법이다. 장부로 평생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창가에 앉아서 학업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독서는 세상을 만나는 창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독서를 하지 않으면 현명함도 지혜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요즘 독서는 입시 경쟁에서 필요하지 않은 과목으로 분류되어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

다. 독서는 뒷전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에만 열중한다. 자식의 학업 성취를 간절하게 바라는 부모들이여! 율곡은 당장의 학업 성취를 위해 독서마저 급하도록 하는 오늘날의 부모들에게 경고를 하고 싶을 것이다.

거가(居家) : 가정의 기본 질서는 지키고 있는가?

“부부 간의 예의도 지키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정이 해체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겨주면서, 그 와중에 아이들에게 학업을 강조하는가? 집안에서 (어른들이) 예법을 중시하고 힘써 실천하며 글 읽고 쓰기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아이가 집 밖에서 다른 잡기를 취하거나 예의를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 부모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요, 더 훗날에는 그토록 애써 키워온 아이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인물이 될 것이기에 미리 교육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율곡은 하물며 집안에서 부리는 종들에게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진심으로 예의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돈을 지불한 대가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음식점 주인에게는 서비스를 맘껏 누려야 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가?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사사로운 일까지 남에게 떠넘기려 들지 않는가? 가진 것은 유한하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가장 현명한 법이다. 누군가에게 군림하려 들고 예의를 차리지 못하는 아이들, 이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모 자신들이다.

처세(處世) : 학업을 입신양명의 수단으로만 가르치는가?

“아이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쳤는가? 아이에게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참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쳤는가? 설령 아이가 ‘공부 기계’ 노릇을 충실히 하여 부모나 아이 모두가 만족하는 지위에 올랐을 때, 그 지위에 맞는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는 가르쳤는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도리를 가르치지 않았으니 이것은 아이에게 자리를 빙자하여 오만하고 남의 것을 마음껏 탐하는 도둑질을 가르친 것과 진배없다. 그러고도 어찌 부모 노릇을 다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들이여, 율곡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학업을 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직접



말할 수 없는 율곡을 대신하여 부모가 스스로 이 같은 내용들을 힘써 가르쳐야 할 것이다. 율곡이 5백 년을 거스르는 ‘발칙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다시 분연히 일어나 『격몽요결』을 펼쳐 든 것은, 먼 훗날의 후손들이 제대로 된 학업 풍토를 마련하여 올바른 학업과 사람됨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이다.

《Notice!》

● 학업을 하는 사람의 자세 - 구용(九容)

- 一, 발 모양을 무겁게 하고(足容重)
- 二, 손 모양을 공손히 하고(手容恭)
- 三, 눈 모양을 단정히 하고(目容端)
- 四, 입 모양은 늘 다물고(口容止)
- 五, 목소리 모양을 조용히 하고(聲容靜)
- 六, 머리 모양을 곧게 하고(頭容直)
- 七, 숨 쉬는 모양을 엄숙히 하고(氣容肅)
- 八, 서 있는 모양을 덕스럽게 하고(立容德)
- 九, 얼굴 모양을 장엄하게 하라(色容莊)

● 학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생각 - 구사(九思)

- 一, 눈으로 볼 때는 밝고 바르고 옳은 면을 생각하라(視思明)
- 二, 귀로 들을 때는 귀 밝은 소리만 들어라(聽思聰)
- 三, 얼굴빛은 항상 온화하게 만들어야 한다(色思溫)
- 四, 몸가짐은 공손하게 해야 한다(貌思恭)
- 五, 말 한마디도 성실하게 해야 한다(言思忠)
- 六, 일할 때에는 공경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事思敬)
- 七, 의심나는 일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疑思問)
- 八, 화가 날 때는 화낸 뒤를 걱정해야 한다(忿思難)
- 九, 이득을 보거든 반드시 의리를 생각하라(見得思義)

ACRC News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

지난 4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초동 소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병훈)를 방문해 부패행위 신고자들을 위한 신경정신 의료 서비스를 무료 지원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5월 19일에는 서대문구 미군동 국민권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권오형 회장)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의 주요 내용은 권익위에서 올해 역점을 기울여 추진 중인 「청렴한 세상 만들기」 원년 행사의 일환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회계 부정 실태 파악 및 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상호 협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 전개 협조, 비영리 단체에 대한 무료 회계 서비스 지원 사업 협조 등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인 국제회계기준(IFRS)이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 전면 도입되고, 공공·민간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 또한 널리 알려지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 경쟁력 및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태백, 정선, 영월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8일 태백시, 29일 정선군, 30일 영월군으로 출동하였다.

이번 태백, 정선, 영월지역 상담반은 농림·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도로, 교통, 산업·환경, 건축, 재정 세무,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농민, 상공인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소하였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전북 익산, 김제, 진안, 충북 괴산, 보은, 단양 및 충남 당진, 예산, 홍성 등 9개 시·군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 합의 169건, 고충민원 접수 86건, 상담 안내 290건 등 총 545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다.



영천시, 경산시 '구불구불' 접경도로 크게 확장키로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10일 영천시 대청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김영석 영천시장, 경산시장 권한 대행인 정병윤 부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재오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좁고 구불구불해 수년 동안 통행 안전 문제가 불거져 온 영천시와 경산시의 접경도로를 양 시가 협력해 확·포장하고, 선형을 개선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통해 ▲민원인과 경산시는 도로 확장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의 1/2씩을 부담하고 민원인이 매입한 부지는 경산시에 무상귀속하며, ▲영천시는 설계 및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되, 설계·공사비는 영천시와 경산시가 6 : 4의 비율로 부담하고, 도로의 사후관리는 영천시가 맡기로 하는 등 민원인과 양 시의 협력방안을 담은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도로가 확·포장되면 인근 기업체의 경영 여건과 주민들의 통행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 이어 우수 청렴도 측정기술 몽골로 전파

지난 5월 11일부터 4일간 국민권익위원회는 몽골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몽골 부패방지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조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몽골 공무원들은 권익위의 청렴도평가 정책을 몽골에 도입하기 위해 심층적인 교육연수를 받았고, 현재 개발 중인 공공부문 청렴도평가 기법에 대해 권익위의 조언과 의견을 구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0년 2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체결된 『한-몽골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 (MOU)』 이행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며, 권익위와 몽골 부패방지청은 5월 11일에 개최된 한-몽골 반부패 협력 사업 착수회의를 통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될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 사업계획에 따라 향후 3년간 몽골은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의 정책을 지원받게 되며, 고위공무원의 교환방문을 통해 양 기관은 각각의 우수 기능과 역할을 상호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그간 청렴도평가 정책을 인도네시아, 부탄, 태국에도 지원한 바 있으며, 몽골이 권익위에 MOU 체결을 요청한 것도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외국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것에 주목하고 정책역량 배양을 희망한 결과다.

편집 후기

이번 호 <국민권익>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국민권익>은 독자 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7월 23일)

Quiz+Quiz

	1		2	7
3, 4		5		
	6			
		8		

가로

2. 의혼이란, 양가에서 중매인을 통해 상호 의사를 타진할 때부터 대례를 거행하기 이전까지의 절차로서 혼담·□□·연길·납폐 등이 이에 포함된다.
4. 친족이 돌아가신 날 모시는 제사. 기제(忌祭)라고도 함. 이 날에는 다른 일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기일(忌日)이라고도 한다. 기(忌)자는 본시 금(禁)의 뜻으로 쓰이는데 근심에 싸여 마음이 다른 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6. 6월 10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이륙 2분여 만에 폭발하면서 우주 □□ 진입에 실패하였다.
8.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와 가진 <2010 남아공 월드컵> B조 경기에서 대한민국을 4:1로 꺾으며 커다란 승점 차이를 기록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이끈 주역으로 3골을 넣으며, 대한민국의 기세를 누른 아르헨티나 최고 포워드?

지난호 퀴즈 정답

	1		2	7
	을		백	신
3, 4	레	5	마	문
러		이		고
	6	아	크	6
		8	로	스
				트

- ※ 낱말 퀴즈의 정답을 독자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 퀴즈에 응모하신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고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세로

1. 우루과이를 상대로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한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전에서 심판을 본 주심의 국적은?
3.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못 별, 또는 위세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을 비유할 때 흔히 쓰는 말. '□□□ 같은 인물'.
5.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에 딸린 섬. 지명은 '제약부경'이라 일컬어지던 사람들에게서 유래되었는데, 그들이 송교리와 이 섬 사이의 갯고랑을 어린아이는 업고 노인들은 부축하고 건네주어 '제약부경'의 'ㄷ'자와 'ㅈ'자를 따서 □□□라 하였다고 한다.
7. 이 책을 지은 홍자성은 중국 명나라 신종 때인 만력(萬曆) 시기(1573-1619)의 선비로, 평생 불우한 선비였으나 이 책 한 권으로 필명이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자연과 마음, 수신과 성찰, 세상사는 법도에 관한 지혜를 담고 있는 책.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 일곱 살짜리 아들이 손을 위로 치켜들고 흔들면서 청탁의 줄로 손을 내릴 수가 없으니 가위로 끊어달라고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손으로 가위를 만들어 '썉둑' 소리를 내며 잘라주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청탁'이 무엇이냐고 묻는 통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청탁이 나쁘고 청렴이 중요한 것임을 생각하게 해주는 짧지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대 (경상북도 안동시)

◎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툭 터놓고 후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간부 공무원 상담센터 현장체험' 행사는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권익위의 노력이 엿보여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간부들이 직접 상담하니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간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회성 특별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환 (광주광역시 북구)

◎ '국민권익' 이름에 걸맞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감사와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이웃들의 선행을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정책 광고를 통해, 글과 말에서 느낄 수 없는 오래도록 기억되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건완 (인천광역시 연수구)

◎ '만화로 보는 고충처리'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고충해결 사례를 만화로 풀어냈기에 민원의 내용과 처리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페이지에 걸친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조사관들의 땀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이은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 '원진우드' 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및 안산시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력하여 함께 일궈낸 '기업 도우미'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라고 직접 알리기보다 민원인의 편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 권익위가 훨씬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또 민원을 해결한 부서의 소개도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조사관들의 모습이 밝아 보여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박순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당신의 청렴이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을 만듭니다!!!

〈청렴가족 편〉 TV광고 이야기

부정한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청렴 아빠!



이익보다는 정직이
우선이라는 청렴 엄마!

현장을 발로 뛰며 고충처리에
앞장 서는 청렴 형아!



연줄보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청렴 누나!

접대할 돈으로 기술개발한다는
청렴 삼촌!



당신의 청렴이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을 만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TV 공익광고를 제작·방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TV 광고에서는 '청렴 가족'이 등장했습니다. 부정한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청렴 아빠, 정직이 우선인 청렴 엄마, 연줄보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청렴 누나, 접대할 돈으로 기술개발을 실천하는 청렴 삼촌. 바로 우리 가족, 여러분 가족의 모습입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반부패·청렴 의식을 공유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회 모든 부문에서 반부패·청렴이 기본이 될 때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행복한 국민'의 청렴 선진국이 실현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표지 일러스트 · 함서정

어느새 살짝 달아오르기 시작한 빠알간 햇살과 초록빛 여름의 풋풋한 향기가 우리에게 무더위가 머지않았음을 알립니다. 게다가 5월은 소외된 이웃, 독거노인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감싸고 토닥이는 따사로운 情의 달이기도 하지요. 청림의 맑고 푸른 향기로 그윽해질 한여름을 기다리며, 전 국민 모두에게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전하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나긴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